

6. 창조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기치의 기준 創造本然の価値の決定とその価値の基準

목적은 반드시 가치를 동반합니다.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가치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을 하나의 꽃이라고 한다면, 가치는 그 꽃 속에서 풍기는 향기나 그 꽃의 열매와 같습니다.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가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창조본연의 가치는 창조목적 성취했을 때에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翻訳】

目的は必ず価値を伴います。目的が実現されるのは、価値の花が咲いて実を結ぶようなものです。目的の一つの花というならば、価値はその花の中で漂う香りが出てきて、その花の実と同じになるです。

目的が成就しなければ価値は実現されません。創造本然の価値は創造目的を成就した時にだけ実現されるのです。

가치의 정의 価値の定義

가치는 절대 혼자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목적 자체도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적인 자리에서 목적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상의 본체요 주체이지만, 하나님 혼자서는 창조이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혼자서는 당신이 지니신 거룩한 가치를 드러낼 수 없고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인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서 전체를 투입하고 또 투입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실현되어야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翻訳】

価値は絶対一人では決定されません。必ず相対的に決定されます。目的自体も一人では完成されません。必ず相対的な位置で目的が成就します。

神様が創造理想の本体であり、主体ですが、神様一人では創造理想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神様도一人では御自身が持たれた偉大な価値を表わすことができず、目的も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必ず対象である人間が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創造が始まったのです。神様は創造のために全体を投入して、また投入しました。それは目的が実現されてこそ価値が現れるためです。価値は絶対に一人では成り立ちません。

가치가 결정되려면 주체가 욕구하는 것을 대상이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대상은 자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내용과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창조본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계에서는 창조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한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인 하나님이 어떤 이상을 추구하면 그 대상인 인간도 같은 이상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지니신 목적이 있다면 대상인 인간도 같은 목적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주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가치는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그것은 주체가 욕구하고 대상이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翻訳】

価値が決定されるには、主体が欲求するものを対象が充足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対象は自分式に生き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主体の欲求を充足するための内容と性質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こで創造本然の価値が決定されます。

ところで墮落した世界では創造本然の価値が何なのかを知らずにいます。自分を中心として、全てのもの

を決めて価値を追求しようとしします。

人間は一人の方である神様から分立した神様の対象なので、主体である神様がある理想を追求すれば、その対象である人間も同じ理想を追求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神様が持たれた目的があるとするならば、対象である人間も同じ目的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対象は主体の欲求を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価値は主体と対象の間で決定されますが、それは主体が欲求し、対象が充足させることであると定義できます。

가치의 결정 価値の決定

가치의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적관으로 본 가치 결정입니다.

【翻訳】

価値の決定は色々な側面で定義できますが、まず考えることができるのは目的観で見た価値決定です。

(1) 목적관으로 본 가치 결정

예를 들어 한 자루의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일 강도가 칼을 들었다면 살인하는 칼이 되고, 의사가 칼을 들었다면 환자를 수술해서 생명을 구하는 칼이 됩니다. 한 자루의 칼이지만 그 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종이가 있더라도 휴지로 쓰면 그것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낡고 너덜너덜한 새가만 종이라든가 문서의 귀중한 문서를 작성한 종이라면 그 종이는 고이 간직됩니다. 종이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그 종이 한 장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翻訳】

(1) 目的観で見た価値決定

例えば一本の刃物があります。その刃物は、誰がどんな目的で使うかによって価値が変わります。万一、強盗が刀を持ったとすれば、人を殺す刃物になり、医師が刀を持ったとすれば、患者を手術して生命を助ける刃物になります。一本の刃物ですが、その刃物を誰がどんな目的で使うかにより、価値が完全に変わります。したがって、私たちは目的によって価値を評価できます。

紙も同じことです。

きれいな紙であってもちり紙として使えば、それはごみ箱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いくら古くてぼろぼろでも、新しいそのままの紙でも一族の貴重な文書を作成した紙ならば、その紙は美しく大事に保管されます。紙がきれいだ、きれいでないということが問題ではなく、その紙を誰がどんな目的で使うかにより、その紙一枚の価値は変わるのです。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토담집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집을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국가를 망치기 위해서 역적들이 모이는 장소로 대리석 집이 쓰인다면 외견상으로는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적인 목적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조국이 바로 서려면 그 집을 헐어야 합니다.

토담집이라도 기울어져 가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독립투사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라면 그 집은 지극히 귀하고 가치 있는 집입니다. 그런 집은 보존해야 합니다.

【翻訳】

家も同じことです。

大理石で作った家があり、土で作った土壁の家があります。現実的に見れば大理石で作った家が土壁の家より、はるかに価値があります。しかし、誰がどんな目的でその家を使うかにより、その価値は変わります。国家を亡ぼすために逆賊が集まる場所として大理石の家が使われるならば、外見上では価値がある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国家的な目的で見る時は価値がありません。祖国が正しく立つには、その家を壊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土壁の家でも、傾いていく国家の運命に責任をとり、独立闘士が命をかけて国を救うために集まって会議する場所ならば、その家は極めて尊くて価値のある家です。そのような家は保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동기가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참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관이 중요합니다. 목적관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와 대상이 그 목적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체에는 주체적인 마음과 대상적인 몸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몸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지만, 사실 나의 마음과 몸은 본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부모이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나왔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계속 가면 부모의 뿌리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인류는 아무리 많이 번식하더라도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翻訳】

いつも私たちの心の中において、自分が動機になり自分が中心となってははいけません。神様が中心となり、真の父母様が中心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目的観が重要なのです。目的観は一人で決め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主体と対象が、その目的を決めて実現するのです。

‘私’という個体には、主体的な心と対象的な体があります。私の心と体がお父さん、お母さんからきましたが、事実、私の心と体は本体であられる神様からきたのです。お父さんとお母さんも、父母である私の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から出てきたし、また、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また、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このようにずっと行けば父母の根は1人の方、神様です。人類は、いくらたくさん繁殖しても、根元が一つなので神様で帰結されるのです。

나무의 뿌리에서 빨아올린 영양분은 가지를 거쳐 수없이 많은 잎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는 수없이 번창하고 영계까지 영인들이 가득 차 있어도 그 뿌리는 단 한 분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한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마음과 몸도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부모를 중심한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은 천주의 핵이자 천주의 축소체입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모, 부부, 자녀 여섯 명입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한 분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해서 참사랑으로 얹혀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확대한 것이 국가요, 세계입니다. 사람은 가정이 확대된 세계에서 살다가 영계로 가는 것입니다.

【翻訳】

木の根元で吸い上げた栄養分は、枝を経て、数えきれない程多くの葉にそのまま伝えられます。これと同じように、人類は数えきれない程繁盛し、霊界まで霊人たちがぎっしり埋まっても、その根元はただ1人の方である神様です。私が一人の方の神様からきたので、私の心と体も神様の目的を実現するためにあるのです。

‘私’という存在は父母から生まれて、その父母を中心とする家庭から出発します。家庭は宇宙の核であり宇宙の縮小体です。家庭の基本は父母、夫婦、子女の六人です。その家庭の構成員は1人の方の神様の心情を中心にして、真の愛で関わって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家庭を拡大したのが国家であり、世界です。人は家庭が拡大した世界で生きて霊界に行くのです。

가정을 위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이 확대된 세계의 인류를 사랑할 수 없고, 영계에서도 다른 영인들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가면 즉시 걸립니다. 사랑의 세계는 어디든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성원은 서로 참사랑에 감응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사랑은 누구든지 좋아하기 때문에 참사랑이 있는 곳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모이듯이 내 마음의 중심도 부모여야 합니다. 내가 부모 안에서 생겼고 부모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심정과 사랑과 인격도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翻訳】

家庭のための生活を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人は、家庭が拡大した世界の人類を愛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霊界でも他の霊人たちを愛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他の人を愛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人は、霊界に行けば直ちに引っかかります。愛の世界はどこでも通じない所がありません。それで、家庭の構成員は互いに真の愛に感応した生活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真の愛は誰でも好むので、真の愛がある所には通り過ぎることがありません。

家庭の中心が父母であるように、私の心の中心も父母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が父母の中で作られたし、父母の中で生まれました。したがって、私の心の中心は父母です。心情と愛と人格も父母からきたのです。

가정을 확대한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종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임금만을 위해 산 사람을 종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만 임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국가의 중심이고 그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임금은 가정으로 볼 때 부모와 같고 백성은 자녀와 같습니다. 나라의 주권자는 백성을 자기 자식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배고플 때 돈을 빌려서라도 먹이고 돌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주권자라면 백성이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굶기고 따뜻한 옷을 입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듯 그 백성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백성은 그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은 가정의 효도와 같습니다. 효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에서 종신이 되지 못합니다.

【翻訳】

家庭を拡大したのが国家です。国家のために生きる人を忠臣と言いますが、今まで王様だけのために生きた人間を忠臣と言いました。しかし、民だけが王様のために生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王様は国家の中心であり、その国の主権者です。王様は家庭で見る時、父母と同じであり、民は子供と同じです。国の主権者は民を自分の子供のように愛して、世話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父母ならば、子供が腹がへる時、お金を借りても食べさせて世話をしようします。同じように国の主権者ならば、民が寒くて震えている時、自分の服を脱いで着せようとする心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飢えさせないで、暖かい服を着せて幸せに暮らせるように父母が子供たちを世話するように、その民に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なった時、民はその指導者に忠誠を尽くします。忠誠は家庭の親孝行と同じです。孝の道理をすることのできない人は国では忠臣になりません。

국가가 확대된 것이 세계입니다. 가정에서 효도하고 국가에서 충성을 다하듯이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는 하나님의 혈통을 잇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타락한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성인은 있었지만, 성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을 가진 아들딸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자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치리하는 궁에서 지켜야 하는 궁법이 있고, 일반적인 법이 있습니다. 지상에도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의 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과 천상에서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줄 알고, 그 두 세계에 있는 궁의 법을 따르고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자입니다.

【翻訳】

国家が拡大したものが世界です。家庭で親孝行をして、国家では忠誠をつくすように、世界のために生きる人が聖人です。その次には聖子がいます。聖子は神様の血統をつなぐ人です。今まで墮落した人が生きる世界には、聖人はいましたが、聖子はいませんでした。神様の血統を持つ息子娘がいなかったという話です。

聖子は天国の法を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天国の法には二種類があります。天国を主管する宮で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宮法があり、一般的な法があります。地上にも天国があり、天国の宮があります。それで地上と天上で天国の法を守ることができ、その二つの世界にある宮法に従って主管できる人がまさに聖子です。

가치는 목적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중심은 효입니다. 효의 근본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피와 살과 뼈를 만들어주신 나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성까지 주신 나의 부모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 우리 앞에 부모로 현현하신 분이 참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섬깁니다. 그것이 효의 도리입니다. 가정에서 참부모님 존영을 모시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짐을 나가고 들어오면서 부모님의 용안을 보고 '내가 오늘 부모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자녀들도 나가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정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결정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翻訳】

価値は目的観によって決定されます。その中心は孝です。孝の根本は神様に侍ることなのに、神様は漠然とした神様でなく、私の血と肉と骨を作って頂いた私の父母です。神様は私の生命を受け、永遠性までも授けた私の父母なのです。

見える神様の実体になり、私たちの前に父母として顕現された方が真の御父母様です。それで、私たちは家庭で真の御父母様に侍り仕えます。それが孝の道理です。家庭で真の御父母様の尊影を迎えて敬拝して祈って、荷物をもって出かけ帰ってきて。御父母様の龍眼を見て'私が今日、御父母様の御言のとおりによろしく生き返る。'という固い意志と心を持って生き、子女たちも出て行って帰ってくれば、そのように暮らせる家庭祭壇が必要です。それで価値の決定は、まさに家庭から成り立つのです。

(2) 창조본연의 가치 결정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이 실현되었을 때 그 대상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것이 창조본연의 가치입니다.

주체가 추구하는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대상이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대상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체가 이상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욕구를 충족해 주는 것이 대상의 존재 목적입니다. 주체의 입장에서 창조이상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욕구를 대상의 자리에서 충족해 드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체의 욕구가 충족될 때 창조본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의 존재하는 목적과 인간 주체의 가치 추구욕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창조본연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翻訳】

(2) 創造本然の価値決定

神様の創造理想を中心にして目的が実現された時、その対象の価値が決定されます。それが創造本然の価値です。

主体が追求する欲求があれば、その欲求を対象が満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主体の欲求を充足させることが対象の存在目的です。主体が理想を成し遂げるための価値を追求する時、その欲求を充足することが対象の存在目的です。主体の立場で創造理想を成し遂げようとする神様の欲求を、対象の位置で充足して差し上げることが人間の存在目的というものです。主体の欲求が満たされる時、創造本然の価値が決定されます。神様の創造理想を中心として、どんな対象の存在する目的も、人間主体の価値追求欲が相対的關係を結ぶことによって、創造本然の価値が決定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창조본연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대상이 인간 주체와 수수작용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제 3 대상이 되어 창조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창조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욕구를 지닌 인간 주체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 그리고 주체와 대상의 합성체, 이렇게 3 대상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 대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3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곧 창조목적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한 인간 주체가 대상과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 3 대상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것이 창조본연의 사위기대사 됩니다. 창조본연의 사위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창조본연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翻訳】

創造本然の価値を持つためには、あらゆる対象が人間主体と授受作用をして、合成一体化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第3対象になり、創造本然の四位基台を成し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創造本然の四位基台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まず神様を中心として欲求を持った人間主体と、その欲求を満たす対象、そして主体と対象の合成体、このように3対象が設定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れで3対象という言葉が重要です。3対象が成り立たない限り、神様を中心とする四位基台は成り立ちません。すなわち、創造目的が完成さ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神様の創造理想を、中心の一人の人間主体が対象と授受作用をして、合成一体化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前に第3対象とな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が、それが創造本然の四位基台になります。創造本然の四位基台が成し遂げられた時、はじめて創造本然の価値が実現されるのです。

창조본연의 가치기준 創造本然の価値基準

사위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므로 그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가치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주인이라면 거기에서 나타난 대상도 절대가치의 주체 앞에 대상의 자리에 서게 되므로 비록 대상이지만 가치로 볼 때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본연의 가치가 바로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翻訳】

四位基台の中心が絶対者の神様であるため、その価値の基準も絶対者の神様です。したがって、絶対者の神様を基準として相対的に決定されるどんな対象の価値も絶対的なのです。

神様が、絶対的な存在としての絶対的価値を追求する主人ならば、そこに現れた対象も絶対価値の主体の前に対象の位置に立つことになるので、たとえ対象であったとしても価値で見る時は絶対的価値を持つことになります。それは創造本然の価値がまさに絶対的価値であるためです。

창조본연의 가치기준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합니다. 절대라는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유일하지 않은 것은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변하기 때문에 절대가 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말 자체가 유일하고 영원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고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翻訳】

創造本然の価値基準は絶対、唯一、不変、永遠です。絶対という言葉は唯一なので使えます。唯一でないものは、絶対にはなれないのです。そして、不変なので絶対になれるのです。

変わるものは絶対にはなれないのです。それ自体は永遠なので、絶対になるのです。絶対という言葉自体가唯一であり、永遠であるという意味を内包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神様において絶対という言葉を使うのです。

인간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몇번씩 변합니다. 조변석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먹은 마음을 3일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뜻의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은 창조본연의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고, 영원성을 갖지 못하고,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어떤 학, 박사 지식인도 마찬가지이고 양심을 지키고 사는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翻訳】

人間は価値を評価する基準にはなれないのです。人間自体は絶対、唯一、不変、永遠の価値を持っていません。人間は一日にも何回も変わります。朝変夕改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また、一度決心しても3日続けるのが容易でないという意味の作心三日（三日坊主）という言葉もあります。

そんなに変わる心を持つ人間は、創造本然の価値を決定する基準にはなれないのです。変わり、永遠性を持つことができず、唯一でないために、人間は価値評価の基準になれないのです。指導者たちも同じことです。どんな学者、博士、知識人も同じであり、良心を守って生きる善なる人も同じことです。

인간을 평가할 때 한 쪽에서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충신으로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 정몽주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에서는 충신이지만, 조선에서는 역적입니다. 해전사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 장군은 한국에서는 충신지만, 일본에서 볼 때는 원수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충신이지만, 한국에서 볼 때는 원수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한쪽에서는 충신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적으로 보는 것은 평가하는 가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翻訳】

人間を評価する時、一方では義に徹した人として見ますが、他の片方では義に徹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人として見たりもします。片方では忠臣として見て、他の片方では逆賊として見たりもします。価値観が違うためです。

高麗時代にチョン・モンジュという忠臣がいました。チョン・モンジュは高麗では忠臣でしたが、朝鮮では逆賊です。海戦史の英雄であがめられる李舜臣将軍は、韓国では忠臣ですが、日本から見る時は怨讐です。伊藤博文は日本では忠臣ですが、韓国から見る時には怨讐です。ひとりを置いて片方では忠臣といい、他の片方では逆賊として見るのは評価する価値基準が違うためです。

창조본연의 가치기준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을 가지는 하나님만이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므로 하나님의 실체로 오시는 참부모님이 실체세계에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현실세계는 어느 누구도 옳다. 그르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계는 잘못된 세계다. 이 국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오늘날 세계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정리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치의 자리에 선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참부모님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창조본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翻訳】

創造本然の価値基準は変わってはいけませんので、絶対、唯一、不変、永遠性を持つ神様だけが、その価値を評価する基準になります。ところで、神様は無形であられるので、神様の実体として来られた真の御父母様だけが実体世界における全てのものを評価できる価値評価の基準になりえます。

現実世界はどこでも誰もが泣きます。正しくないと評価できません。ただ真の御父母様によって'この世界は誤った世界だ。この国家はこのように行ってはいけません。今日、世界はこのように行ってはいけません。'

’と整理しておっしゃることができます。

神様が絶対、唯一、不変、永遠の価値の位置に立った絶対者なので、絶対者である神様の実体として来られた真の御父母様だけが、人間の価値を評価する基準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その他には、どこの誰も創造本然の価値を評価することのできる基準にはなれないです。

창조본연의 지정의와 진미선 創造本然の知情意と真美善

人間の 마음은 지, 정, 의의 세 가지 기능을 발휘합니다. 인간의 육신은 그 마음 곧 지, 정, 의의 감응체로서 진, 미, 선의 가치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마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 정, 의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본연의 가치 실현욕에 의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 정, 의에 감응하고 그것이 몸에서 행동을 통해 창조본연의 진, 미, 선의 가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翻訳】

人間の心は知、情、意の三種類の機能を發揮します。人間の体は、その心における知、情、意の感応体として、真、美、善の価値を行動で現わします。

神様は人間に対して心の主体なので、知、情、意の主体です。したがって、人間は創造本然の価値実現欲によって、心で神様の知、情、意に感応して、それが体において行動を通じて創造本然の真、美、善の価値として現れることになります。

’지’가 먼저냐? ’정’이 먼저냐? 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본체에는 ’지’와 ’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 안에도 ’정’과 ’의’가 있으며 그 중심이 ’지’입니다. ’정’ 안에도 ’지’와 ’의’가 들어 있으며 그 중심이 ’정’입니다. ’의’ 안에도 ’지’와 ’정’이 들어 있는데 그 중심이 ’의’입니다. 이처럼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하나님 본체 안에는 ’지, 정, 의’가 통일체로서 모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 정, 의’에 감응되어 인간의 마음에 ’지, 정,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翻訳】

’知’が先か? ’情’が先か? を置いて論議がありえますが、本体には’知’と’情’が別々にあ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知’の中にも’情’と’意’があり、その中心が’知’です。’情’の中にも’知’と’意’が入っていて、その中心が’情’です。’意’の中にも’知’と’情’が入っていて、その中心が’意’です。

このように区分して説明しますが、神様の本体の中には’知、情、意’が統一体として、全部一緒にあります。神様の心の中にある’知、情、意’に感応して、人間の心に’知、情、意’として現れることになるのです。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지적’인 요소가 중심이지만, 그 가운데는 ’정적’인 요소도 있고, ’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적’이라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적’이라서 행동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적’인 면에서는 나약한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중심 요소가 강하냐에 따라서 지적인 사람, 정적인 사람, 의적인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런 마음이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가치가 ’진, 미, 선’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翻訳】

したがって、ある人が’知的’な人ならば、その人には’知的’な要素が中心ですが、その中では’情的’な要素もあり、’意的’な要素もあります。ある人は’情’が多くて、ある人は’知的’なので問い詰めるのが好きです。ある人は’意的’なので行動するのが好きですが、’情的’な面では弱気な面を見せたりもします。

人間は普遍的にそのような面を有していますが、ある中心要素が強いのかいなかにしたがって知的な人、

情的な人、意的な人と区分します。そのような心が、体を通じて行動で現れる時、その価値が‘真、美、善’で区分されるのです。

그 중에서 ‘지’는 참을 추구하고, ‘정’은 미를 추구하고, ‘의’는 선을 추구하는데 그 중심은 심정입니다. 심정을 뿌리로 한 ‘지적’인 분야는 참을 추구하되 심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지’는 그 자체가 거짓된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혁명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심정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翻訳】

その中で‘知’は真を追求し、‘情’は美を追求し、‘意’は善を追求するのですが、その中心は心情です。心情を根とした‘知的’な分野は真を追求するものの、心情を土台にしない‘知’はそれ自体が偽りになってしまう理論になりうるのです。

共産主義は、理論が科学的で論理的な真理を追求するのですが、それは真理ではありません。共産主義理論は革命をするための道具に過ぎません。心情を基に真理を追求する理論ではないので、そうなのです。

하나님의 심정권에서 일체가 되지 않는 인간은 거짓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이 세운 이론은 거짓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심정이어야 하고, 모든 창작의 동기도 심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사랑에 의해서 감응되어 마음에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에 ‘지, 정, 의’가 사랑을 통해서 감응되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 미, 선’입니다. 그래서 ‘진, 미, 선’에 대한 가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翻訳】

神様の心情圏で一体になれない人間は、偽りなった人間であり、偽りなった人間が立てた理論は偽りなった理論です。なので私たちのすべての人生の動機が心情でなければならない、すべての創作の動機も心情でなければならない。

神様の‘知、情、意’が、愛によって感応して心に現れるように、私たちの心に‘知、情、意’が愛を通じて感応し、行動として現れることが‘真、美、善’です。それで‘真、美、善’に対する価値も存在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

5)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

愛と美、善と悪、義と不義

‘사랑과 미’, ‘선과 악’, ‘의와 불의’는 모두가 어떤 가치 평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미다.’하고 ‘사랑’과 ‘미’를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도 ‘미’가 있고, ‘미’ 안에도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우는 ‘사랑과 미’와 같지 않습니다. ‘사랑과 미’가 동질성을 지닌 것과 달리 ‘선과 악’은 지향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과 악을 다루는 것은 타락세계의 인간들이 악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선으로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히 규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 평가입니다.

‘의와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불의의 인간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이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창조본연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그런 평가 기준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

【翻訳】

愛と美, 善と悪, 義と不義は皆がある価値評価に対する表現です。人々はよくこれは愛だ。、これは美だ。と愛と美を別々に区分して評価します。しかし愛の中にも美があり、美の中にも愛が入っています。

善と悪の場合は愛と美の場合と同じではありません。愛と美が同質性を持つことと違い、善と悪は指向する方向と目的が違います。ところで、私たちがここで善と悪を扱うのは、墮落世界の人間が悪を追求しながらも、それを善と間違えて判断するためです。善と悪を正確に規定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何が真であり、何が偽りなのか? 何が善であり何が悪なのか? ということ、まともに判断することが正しい価値評価です。

義と不義も同じことです。どんなものが義に徹したことであり、どんなものが不正なことなのか、どんな人が義人であり、どんな人が不義の人間なのかを区分できなくて、自分の気に入れば良い人と言い、気に入らなければ正しい言葉を話しても、それを聞こうとしないで、その言葉が正しくない判断します。創造本然の価値をおいて見ることによって、そのような評価基準は全部、整理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1) 사랑과 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성의 실체가 성상과 형상, 또는 양성과 음성입니다. 그것이 각각 주체와 대상이 됩니다. 그 주체와 대상이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면 합성일체화한 하나님의 제3 대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가 이루어집니다. 3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위기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제3 대상으로 합성일체화하기 위하여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고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수작용은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翻訳】

(1) 愛と美

神様から分立した二性の実体が性状と形状、または、陽性と陰性です。それが、それぞれ主体と対象になります。その主体と対象が相対基準を作り、授受作用をすれば合成一体化した神様の第3対象が現れますが、その時、神様を中心とする四位基台が成し遂げられます。3対象が現れなければ四位基台が成り立ちません。

四位基台を成し遂げる前に、神様の第3対象として合成一体化するために主体が対象にあたえる情的な力を愛といい、対象が主体に返す情的な力を美といいます。したがって授受作用とは主体と対象が愛と美を受け受けすることです。

사랑의 힘은 동적이고, 미의 자극은 정적입니다. 남자가 주체이고 여자가 대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은 동적입니다. 그때 여자가 나타내는 반응은 미가 되는데 그 반응은 정적입니다. 남자의 사랑 표현은 적극적인 반면에 여자의 사랑 표현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 속에도 미가 있고, 미 속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랑과 미는 수수작용을 하기 위한 요소로서 두 요소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翻訳】

愛の力は動的であり、美の刺激は静的です。男性が主体であり、女性が対象の場合、一般的に男性が女性にあたえる愛は動的です。その時、女性が現わす反応は美になるので、その反応は静的です。男性の愛の表現は積極的である反面、女性の愛の表現は消極的です。

しかし人により、また時により、女性が男性よりもさらに積極的な場合もあります。それが愛の中にも美があり、美の中にも愛があるためです。それで、片方だけに固執するのは誤りです。愛と美は授受作用をするための要素として存在し、この二つの要素は調和を作り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으로 한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 세 가지 사랑을 3대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자녀의 사랑에는 형제의 사랑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대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렇게 4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바로 심정입니다. 4대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심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4대심정권에서 참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체 속에 4대심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체를 통하지 않고 서는 참사랑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면 참사랑을 실감할 수 없고 성취욕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4대심정권의 본체로 성장해 왔고, 그 심정을 실감하기 위해서 직접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翻訳】

神様の創造理想を中心とした愛には三の種類があります。父母の愛、夫婦の愛、子女の愛がそれです。その三種類の愛を3大愛と表現しますが、子女の愛には兄弟の愛が含まれるので実際には4大愛です。父母の愛、夫婦の愛、兄弟の愛、子女の愛、このように4大愛です。その愛の根元が、まさに心情です。4大愛が神様の中にある心情から出てきたのです。4大心情圏から真の愛が出てくるのです。

神様は自体の中に4大心情圏を有していますが、実体を通じないで立てなければ真の愛を実現できません。実体がなければ、真の愛を実感できず、成就欲も充足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神様も4大心情圏の本体に成長してきたのであり、その心情を実感するために直接、アダムとエバを創造されたのです。

아담, 해와가 완성한다는 말은 곧 4대심정권의 완성을 뜻합니다. 아담, 해와가 4대심정권을 완성하면 하나님도 완성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4대심정권을 이루기 위한 것이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절대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성의 사랑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기대가 사위기대, 곧 가정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부모, 부부,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섯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翻訳】

アダム、エバが完成するという言葉は、まさに4大心情圏の完成を意味します。アダム、エバが4大心情圏を完成すれば、神様も完成した位置に立つことになります。4大心情圏を成し遂げるためのものが'取って食べるな。'という御言であり、その御言は絶対性を守ることでした。

絶対性の愛は三の種類に分類できます。父母の愛、夫婦の愛、子女の愛です。その愛を実現するための基台が四位基台、すなわち家庭です。家庭の構成員は父母、夫婦、子女です。それで家庭は六人を基本として構成されます。

맨 처음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 자녀가 부부의 자리를 거쳐 자녀를 낳으면 맨 처음의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로 가게됩니다. 맨 처음의 부모가 없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자리를 거쳐서 부모가 되는 것이지, 부부의 자리를 거치지 않고 부모가 되는 법을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자리를 거쳐서 부부가 되는 것이지, 자녀의 자리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부모도 완성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미로 귀결되는 수수작용의 관계입니다. 수수작용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완성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창조이상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수작용이 필수 요건입니다.

【翻訳】

一番最初に子女は父母によって存在します。その子女が夫婦の位置を経ることで子女を産めば、一番最初の父母は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の位置に行くことになります。一番最初の父母がいなかったとすれば、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もいません。父母も同じことです。夫婦の位置を経ることで父母になるのであって、夫婦の位置を経ないで父母になる方法はありません。夫婦も同じことです。子女の位置を経ることで夫婦となるのであって、子女の位置を経ずには夫婦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

結局、父母がいてこそ子女があり、子女がいてこそ父母も完成されます。それがまさに、愛と美として帰

結される授受作用の関係です。授受作用の関係が確立されなければ完成という話も成立しません。創造理想の完成のためには授受作用が必須要件です。

수수작용의 결과, 대상이 주체에게 돌리는 '미'가 나타나는데, 미는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충', '효', '열'이 그것입니다. 이미 밝힌 대로 '충'은 마음에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부모에 의해서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느끼고 배웁니다. 거기서부터 사회, 국가, 세계로 더 높은 차원을 향해 심정의 생활환경을 넓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翻訳】

授受作用の結果、対象が主体に戻す'美'が現れますが、美は三つに区分できます。'忠', '孝', '烈'がそれぞれです。すでに明らかにした通り'忠'は心の中心を立てるのです。心の中心がまさに父母です。

私は父母から出発しました。父母によって生まれたし、父母から心情と愛と人格を感じて学びます。そこから社会、国家、世界へと、さらに高い次元に向かって心情の生活環境を広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なので私の心の中心は父母になるのです。

내 마음의 중심은 부모인데, 그 부모의 뿌리는 심정의 본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라는 신념으로 사는 것이 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는 비록 두 분이지만, 그 부모에서 부모로 올라가면 결국 인류는 최초의 조상인 한 남자, 한 여자를 부모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그 최초의 조상은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최초의 조상은 내 육신의 뿌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내 영원한 영인체의 뿌리가 되는 분입니다. 만민공통의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입니다.

【翻訳】

私の心の中心は父母であり、その父母の根は心情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です。そのために、神様を征服することがまさに忠です。私の心の中心に神様を迎えて、神様の心により、神様の御旨が私の御旨という信念で生きることが忠だということです。

私を生んでくれた父母は、たとえお二方であったとしても、その父母から父母へと上に上がれば結局、人類は最初の先祖である一人の男性、1人の女性を父母にして生まれました。その最初の先祖は根元が神様です。最初の先祖は私の体の根元になりますが、神様は私の永遠の霊人体の根元になる方です。万民共通の父母は神様です。それで神様は人類の真の父母なのです。

모든 인간은 마음의 중심이 부모인데, 그 부모의 근원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충은 하나님의 정복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충이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라면, '효'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듯이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부모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모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翻訳】

すべての人間は、心の中心が父母であるのに、その父母の根源であられる方が神様です。それで、忠は神様の征服することだと言ったのです。真心で神様のために生きれば、神様の心を征服することになります。

広い意味で、忠とは神様を征服することというならば、'孝'は私を生んでくれた父母を征服することです。神様のためにと言う意味で、私の心とみ意と性分をつくして父母のために愛することが孝です。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いる人が父母を征服するのです。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요한복음 14 장 10 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모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은 하나님을 정복하는 것이고, ‘효’는 부모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은 상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충과 효는 종적인 관계이고, 열은 횡적인 관계입니다. 열은 상대적 개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열남, 열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는 자녀로서 종적인 관계이지만, 그 남자와 여자는 횡적인 관계입니다. 상대적인 관계에서 ‘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翻訳】

‘私は父の中であって、父が私の中にいらっしゃる。’(ヨハネ福音 14 章 10 節)はイエス様の御言のように、父母の中心が神様なので、‘忠’は神様を征服することであり、‘孝’は父母を征服することです。

そして‘烈’は相対を征服することです。忠と孝は縦的な関係であり、烈は横的な関係です。烈は相対的概念から出てきた言葉です。それなので烈男、烈女が必要なのです。神様の立場からすると男性と女性は子女として縦的な関係ですが、その男性と女性は横的な関係です。相対的な関係で‘烈’を立て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횡적으로 볼 때 절대성의 본체인 아버지 앞에 실제적인 절대성 중심한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부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면 열남이 되고, 여자의 경우 남편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했을 때 열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남, 열녀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성을 중심해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난 상대권에 있는 남자나 여자는 절대성을 중심한 열남, 열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翻訳】

横的に見る時、絶対性の本体であられるお父様の前に、実体的な絶対性の中心である生殖器の主人は相対です。そのために、‘烈’というのは相対を絶対的に信じて愛して、相対に服従することです。

男性の場合、夫人を絶対的に信じて愛して、彼女に服従すれば烈が現れることになり、女性の場合、夫を絶対に信じて、絶対服従した時には烈女になるのです。その烈男、烈女の本体は神様でいらっしゃいます。神様が絶対性を中心としてお父様になるので、実体で現れた相対圏にある男性と女性は、絶対性を中心とした烈男、烈女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のです。

그런데 타락한 세계에는 충신은 있지만 충녀는 없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한 나라의 이상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효와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자, 효녀가 있고 열녀가 있지만 열남은 없습니다. 본연의 세계에서는 충, 효, 열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충신이 있듯이 충녀도 있어야 하고, 효자, 효녀가 있고, 열녀가 있듯이 열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절대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충’도 없어지고, ‘효’도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翻訳】

ところで、墮落した世界には忠臣はいませんが忠女はいません。女性が神様を中心とする国の理想を持て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す。‘孝と烈’も同じです。孝行息子、孝行娘がいて、烈女はいますが烈男という人はいません。

本然の世界では忠、孝、烈の価値を正しく立てるために忠臣がいるように、忠女もいなければならず、孝行息子、孝行娘がいて、烈女がいるように烈男という人もいなく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の価値は絶対性の上に立てられるのです。その絶対性を失えばすべて失うことになります。‘忠’もなくなり、‘孝’もなくなり、‘烈’もなくなるのです。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중심해서 분리된 주체와 대상은 서로 주고받는데 주체가 대상에게 주는 정적인 힘을 사랑이라 하고, 대상이 주체에게 돌려주는 정적인 힘을 미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 안에도

‘미’가 들어 있고, ‘미’안에도 사랑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미는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의 사랑이 없으면 대상에게서도 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상이 지닌 ‘미’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翻訳】

前に神様の創造理想を中心として分立した主体と対象は、互い授け受けするのにおいて、主体が対象にあたる静的な力を愛といい、対象が主体に戻す静的な力を美といいました。また、愛の中にも‘美’が入っており、‘美’の中にも愛が入っているといいました。

愛と美は授け受けすればするほど大きくなるのです。それで主体の愛がなければ、対象からも美があらわれません。それで対象が持っていた‘美’の価値がなくなるというのは違います。対象の価値はそのままなのです。

사람이 아무리 못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개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진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놓고 ‘마음에 안 든다, 밉다, 싫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밉고 싫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미의 가치는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이 충, 효, 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翻訳】

人がいくらぶさいくだったとしても、神様から与えられた本性があります。各々の個別相があります。それで個性真理体というのです。それなので人を置いて‘気に入らない、憎い、嫌いだ。’で判断してはいけません。いくら憎くて嫌いであっても、その人が持っている価値は絶対的です。

それをむやみに判断してはいけません。その話です。それは神様を無視する結果になります。結局、美の価値は愛を通じて現れますが、それが忠、孝、烈として現れるのです。

(2) 선과 악

주체와 대상이 사랑과 미를 잘 주고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삼대상이 되어 사위기대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위기대도 이루지지 않습니다.

삼대상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속에서 분리된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아야 합니다. 주체와 대상이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화하면 하나님의 삼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 삼대상이 서로 수수작용하면 사위기대가 조성되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탄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사탄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를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면 선이 되고, 사탄을 중심하면 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翻訳】

(2) 善と悪

主体と対象が愛と美をよく授け受けして、合成一体化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三対象となり、四位基台を作ります。なので、神様の三対象にならなければ、四位基台も到底成し遂げられけません。

三対象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神様の中で分立した主体と対象がよく授けて、確かに受け取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主体と対象が授受作用をして合成一体化すれば、神様の三対象として現れます。その三対象が互いに授受作用すれば、四位基台が造成されて神様の創造目的が成就するのです。そのような神様の創造目的を成就する行為や、その行為の結果を善といいます。

反面、サタンを中心として四位基台を作ることによって、サタンの目的を成就する行為やその行為の結果を悪といいます。神様を中心とすれば善となり、サタンを中心とすれば悪となる。その話です。

앞으로 타락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원래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악이 생겨

났습니다. 악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시종인 동시에 인간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켜 자기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존재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놓고 볼 때 그것은 원리가 무시된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선이 있으니까 악이 있고, 악이 있으니까 선이 있다.'는 상대개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반적 개념입니다. 선과 악은 한 점에서 출발했지만, 둘은 동기와 목적이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갈등하고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翻訳】

今後、墮落論で詳しく説明するでしょうが、本来は悪がなかったのです。ところが人間の墮落によって悪が生じました。悪の主体はサタンです。サタンは神様の侍従であると同時に人間の僕でした。その僕が神様の子女を墮落させて、自分の子女に作りかえました。自らの存在位置を離れたので、サタンになったのです。神様の原則をおいてみる時、それは原理が無視されたのです。それが悪です。

善と悪の概念を確かに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善があるから悪があり、悪があるから善がある。'という相対概念は成立しません。善と悪は相対的概念ではなく、相反的概念です。善と悪は一点から出発しましたが、二つは動機と目的が違い、方向も違います。そのために二人が会えば葛藤が生じて闘争を行うのです。

(3) 의와 불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의라고 하며, 악의 목적, 다시 말하면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악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위한 생활은 의가 되고, 악을 위한 생활은 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느냐, 의롭지 못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도 역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선의 목적과 방향을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의는 어떤 학문적 단어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활적으로 표현되는 실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동기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체가 됩니다. 생활을 통해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翻訳】

(3) 義と不義

目的を成し遂げる過程で、善のための生活的な要素を義だとしながら、悪の目的、言い換えればサタンの目的を成し遂げる過程で、その悪のための生活的な要素を不義といいます。なので善のための生活は義となり、悪のための生活は悪になるという言葉です。

'私が義に徹した位置にあるのか、義に徹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位置にあるのか?'ということも、やはり'私自身が神様を中心として生きているのか、神様を中心として生きていないのか? 私の考えが神様の御心を中心とする善の目的と方向に従っているのか、そうでないのか?'にしたがって決定されます。

なので義と不義はどのような学問的な単語としても説明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こには生活的に表現される実践要素が入っています。それはいつも'中心が神様か、違うのか?'という問題に従います。いつも神様が動機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こそ神様が私の中に入ってきて一体になります。生活を通じて義に徹した人と義に徹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人が区分されるのです。

7. 피조세계의 창조과정과 피조물의 성장기간

被造世界の創造過程と被造物の成長期間

피조물들은 창조되자마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완성이란 말에는 완속해 간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해 가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성장하면서 완숙할 수 있는 내용을 채워 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닮아서 완숙하고, 몸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내외적으로 완숙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책임분담이고, 그 책임분담을 완성하는 기간이 성장기간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게는 성장기간이 있습니다.

【翻訳】

被造物は創造されるやいなや完成されるのではなく、一定の期間を経て完成されます。完成という言葉には完熟して行くという意味が入っています。

人間は子供に生まれて、思春期を経て、成人になります。外的には成長して行くことであり、内的には成長して円熟になる内容を満たして行くのです。

心は神様の心情と真の愛と人格に似て完熟し、体は神様の原理と法度と秩序的な生活をできるように成長していくです。したがって人間は内外的に完熟していくべきです。それがまさに人間の責任分担であり、その責任分担を完成する期間が成長期間です。このようにすべての被造物には成長期間があります。

1) 피조세계의 창조과정

被造世界の創造過程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갈라 세웠습니다.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 세웠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 그리고 육지의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고, 여섯째 날에는 포유류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6일 동안 피조세계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翻訳】

創世記1章1節から31節を見れば、神様の創造過程が出てきます。神様は最初の日に光を創造し、光と闇を分けて立てました。その時は地が混沌として、むなしくて、暗闇が深い上にあって神様の霊は水面上で運行しました。そこに神様は光を創造して光と闇を分けました。

二番目の日には大空で上の水と下の水に分けて立てたし、三番目の日には海と陸地そして陸地の植物を創造しました。四番目の日には太陽と月と星を創造しました。五番目の日には魚と鳥を創造したし、六番目の日には哺乳類と人間を創造しました。このように聖書には6日間を通して被造世界を創造し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왜 나타났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빛은 하나님 속에 있는 아담과 같은 한 점에서부터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과정을 보면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우주가 여섯 단계로 생성됐다고 봅니다. 맨 처음은 무수시대인데, 그때에는 우주가 가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이 생겨 유수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翻訳】

ここで日と月と星がどうして現われたのかを分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光は神様の中にあるアダムのような一点からだんだんと現われるようになります。日と月と星は光とは違うのです。神様の創造過程を見れば四番目の日に日と月と星を創造しました。

科学界でも宇宙が六段階に生成されたと考えます。最初は無水時代なので、あの時には宇宙がガスとしていっぱいになったと言います。聖書では混沌して空虚であり 暗闇が深さの上にあると言いました。その次に水が生じて有水時代になったと言います。聖書には空の下の水と上の水とに分け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가 생겼다고 하는데, 성경에서처럼 위로 솟아오를 곳은 육지가 되고 가라앉은 곳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식물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한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었듯이 동물이 나타났고, 여섯 번째 단계에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질학계에서 밝힌 지질시대의 구분도 여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무생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시작되는 시생대, 단세포 동물이 나타난 원생대, 육상 식물이 나타난 고생대, 조류와 포유류 등이 나타난 중생대, 인류가 나타난 신생대로 구분한 것입니다.

【翻訳】

その次に、海と陸が生じましたが、聖書のように湧き出てきて、上に上がるところは陸地とり、下に沈んだところは海になりました。その時に植物が現れます。光があるので、植物が存在できるようにされたものです。その次に、聖書で語られた魚や鳥が創造されたように、動物が現れ、第六段階で最終的に人間が現れます。

地質学界で明らかにした地質時代の区分も6つの段階になっています。一番最初は命がない無生代で開始し、その後に生命が始まる始生代、単細胞生物が現れた原生代、陸上の植物が現れた古生代、鳥類や哺乳類などが現れた中生代、人類が現れた新生代という区分です。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6일 동안 지었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루가 아닙니다.

배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내용을 보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하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구상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의 기간을 하루라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만들려고 했다면, 구상하는 데만 수천년, 수 만년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미꽃이 핀 결과를 놓고 하루 아침에 장미꽃 한 송이가 나타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상에서부터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전체 기간을 성경에서는 하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6일이라는 개념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6일이 아니라 창조과정의 6단계를 뜻합니다.

【翻訳】

クリスチャンの中には、聖書に記録されている神様が被造世界を6日間で作したと信じる人が多いです。しかし、聖書で言う一日は、私たちが考えている24時間を基準とした一日ではありません。

ペテロ後編3章8節にある「愛する者よ、主は一日が千年のようであり、千年は一日のようだというのを忘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内容を見ても、聖書で言う一日は、私たちが知っている24時間を基準とした一日ではないと知ることができます。創造のための神様の構想が実体として現れるまでの期間を一日と見ています。

たとえば、神様がバラの花を創造しようとした場合、視覚化するためだけでも、数千年、数万年か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バラの花が咲いた結果を置いて、一晩でバラの花一輪が現れたという表現があります。構想から実体が現れるまでの全期間を聖書では、一日と規定しました。ですので、聖書の6日という概念は、24時間を基準にした6日ではなく、創造過程の6段階を意味します。

2) 피조물의 성장기간

被造物の成長期間

어느 것이든 창조에는 시작이 있고 완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완성되는 과정이 성장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도 성장기간을 거쳐서 창조하신 목적이 완성됩니다.

【翻訳】

どんなものも創造には開始があり、完成される過程があります。その完成される過程が成長期間です。神様の創造物も成長期間を経て創造された目的が完成されます。

(1) 성장기간이 있다는 증거

첫째, 하나님의 창조과정을 보면 성장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기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이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어떤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을 전기분해할 때도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翻訳】

(1) 成長期間がある証拠

まず、神の創造過程を見ると、成長期間があ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成長期間がない場合は、神様の創造が6日などとかかる必要がありません。

被造物が完成されるまで、必ずある期間が必要になります。水を電気分解する時も、わずか数秒しかかからないようですが、水が水素と酸素に分解されるまで、必ず時間を要します。

땅에 식물의 씨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땅 속에서 발아하는 기간이 있고, 떡잎이 나와 성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성장하여 꽃이 피더라도 그 꽃잎이 떨어지고 꽃잎 속에 들어 있는 작은 씨방이 커서 열매를 맺고 완숙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기간이 필요합니다.

【翻訳】

地面に植物の種をまくと根が生えすぐに花が咲き、実が実ることがありません。その種が土の中から発芽する期間があり、双葉が出て成長していく期間があります。

成長して花が咲いても、その花びらが落ちて花びらの中に含まれている小さな実が大きくなって、実を結んで完熟する期間があります。このように、すべての被造物が完成するためには、必ず成長期間が必要です。

둘째, 타락으로 보아서 성장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창조되자마자 완성했다면 타락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타락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미완성 단계에서 타락했습니다.

【翻訳】

第二に、墮落で見ても成長期間があ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アダムとエバが墮落せずに創造されるとすぐ完成したなら墮落という言葉がありません。完成しておいたら次は墮落が起こることがありません。アダムとエバは、完成を見つめる未完成の段階で墮落しました。

셋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주신 것으로 보아서 성장기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장기간은 인간 스스로 성숙해가야 할 완숙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이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 책임분담입니다.

책임분담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완숙입니다. 완숙은 절대성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절대성 남자가 되어야 하고, 해와도 절대성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 완성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완성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책임분담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翻訳】

第三に、神様が人間に責任分担を与えたことを見ると成長期間があると見えることでしょう。成長期間は、人間が自ら成熟しなければならない完熟の期間です。

神が「取って食べてはならない。」(創世記2章17節)という御言を授けたのは、人間がまだ完成していなかったので、御言を守って完成し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それは人間の責任分担です。

責任分担の最も重要な目標が完熟です。完熟は絶対性の実体となることでしょう。アダムも絶対性の男性にならなければならず、エバも絶対性の女性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人間の完成の基準です。人

間が完成すれば、神様がその場に入っ生きようということです。人間の完成は、神様が代わって与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人間が自らの責任分担と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す。ですから時間が必要です。

넛째, 성서적으로 보아도 성장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1 장 5 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된 것을 둘째 날이라 하지 않고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의 과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밤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면 반드시 밤을 거쳐야 아침이 옵니다. 밤이라는 것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창조이상을 세워 구상하고 설계하신 기간은 밤에 해당합니다. 그 구상과 설계가 실제로 드러나는 때가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구상과 설계에 따라 나타난 실체가 밤이라는 성장기간을 지나면서 성장하여 완성함으로써 창조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출발을 하기 때문에 첫째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翻訳】

第四に、聖書的に見ても、成長期間があります。創世記1章5節に「...夕となり、朝となった。最初の日である。」という御言があります。夕方を過ぎて、朝になったことを二日とせずに最初の日としました。その理由は、創造の過程を知っておけば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夜と朝の間には、夜という期間があります。夕方になったら、必ず夜を経て朝が来ます。夜というのは実体が見えない期間です。神様が見えない場所で創造理想を立てて構想して設計された期間は、夜に該当します。その構想と設計が実体として現れる時が夕方です。

そして、その構想と設計に基づいて現れた実体が夜という成長期間を経て成長して完成することにより、創造理想を実現するための第一歩となるので、初めの日と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3) 피조물의 성장기간과 인간책임분담

被造物の成長期間と人間の責任分担

저녁이 되어 실체가 드러났다고 해서 바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의 경우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물질(음식물 등)을 섭취하면 되지만,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도 성장기간을 지나 씨가 생기고 그 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다시 실체가 나올 만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翻訳】

夕方になって実体が現れるようになって、すぐに完成す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それは生まれたにすぎません。生まれたら成長する必要があります。人間の場合、肉体的に成長し、精神的に成長する必要があります。肉体的な成長には、物質(食物など)を摂取しないといけませんが、精神的に成長するには、神様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万物も同様です。万物も成長期間を過ぎて種が生じ、その種を植えれば、そこから再び実体が現れるまで完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1) 피조물의 성장기간

창세기 1 장 5 절의 말씀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 위해서'는 밤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밤이라는 기간이 성장기간입니다.

성장기간은 3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으로 보면 이성성상이지만 그 이성성상의 통일체로 계신 한 분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1수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3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분합이라는 3 단계 창조 법칙도 그 3수에서 나온 것입니다.

【翻訳】

(1) 被造物の成長期間

創世記1章5節の御言のように「夜になり、朝になるために」は、夜という期間を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の夜という期間が成長期間です。

成長期間は3段階になっています。その理由は、神様に似たためです。神様は内的に見れば、二性性相ですが、その二性性相の統一体としておられる一人の方です。ですから外的に見れば、1数だけですが、内的に見る時には3数としてなされています。正分合という3つの段階の創造方法もその3数から出てきたものです。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도 원리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3 단계를 거쳐 성장합니다. 그 3 단계 성장기간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입니다.

소생기도 3 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생기 소생급, 소생기장성급, 소생기완성급으로 세분되는 것입니다. 장성기도 장성기 소생급, 장성기 장성급, 장성기 완성급이 있습니다. 완성기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기에도 완성기 소생급, 완성기 장성급, 완성기 완성급이 있습니다.

【翻訳】

神様に似た被造物も原理によって造られたため、3段階を経て成長します。その3段階成の長期間が蘇生期、長成期、完成期です。

蘇生期も3つの級に区分されています。蘇生期蘇生級、蘇生期長成級、蘇生期完成級に細分されているものです。長成期も長成期蘇生級、長成期長成級、長成期完成級があります。完成期も一日の朝に完成され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完成期にも完成期蘇生級、完成期長成級、完成期完成級があります。

성장의 단계를 모두 합치면 9 단계가 됩니다. 9 단계를 거쳐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 수가 완성수입니다. 이 완성수인 9 수에 하나님 수 1 을 더하면 10 수가 됩니다. 그것이 귀일수입니다. 9 단계의 성장을 마치면 하나님을 닮은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10 수가 됩니다. 그래서 10 수를 귀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0 은 첫 번째 숫자인 1 과 같은 것입니다. 1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첫째 날이라고 모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이러한 창조원리에 따라 성장합니다. 만물도 이 원칙을 따라서 성장하고 인간도 이 원칙을 따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리적인 성장입니다. 생리적인 성장이란 몸의 성장을 말합니다. 몸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하고 완성합니다.

【翻訳】

成長の段階をすべて合わせると、9段階になります。9段階を経て完成するということです。ですので9数が完成数なのです。この完成数である9数に神様の数、1を加えると10数になります。それが帰一数です。9段階の成長が完了したなら、神様に似た位置に戻るので、10数になります。ですので10数を帰一数というのです。そう見ると、10は、最初の数字である1のようなものです。1と同じ意味を持って出発するので、それはまさに最初の日となります。

すべての被造物は、これらの創造原理に沿って成長します。万物もこの原則に沿って成長し、人間もこの原則に沿って成長するのです。それが生理的な成長です。生理的な成長とは体の成長を指します。体は原理の自律性と主管性によって成長して完成します。

만물은 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장기간을 지니면 자동적으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생리적인 성장으로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에 자율성과 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경우 몸을 만들 영양소가 풍부한 토양에 뿌리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싹이 터서 필요한 성분을 흡수하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율성입니다. 한편 씨 속에는 장차 나무가 될 설계도가 들어 있어서 그 설계도대로 몸을 기웁니다. 은행은 은행나무만을 키우고, 상수리는 상수리나무만을 키웁니다. 그것이 주관성입니다.

인간도 몸은 만물과 같은 원리의 길을 거쳐서 완성합니다. 생리적 인간의 완성은 자율성과 주관성에 따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한 성장기간을 간접주관권이라 합니다. 간접주관권은 전적으로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고, 원리의 힘에 의해서 주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리결

과주관권이라고도 합니다.

【翻訳】

万物は、体を主として、成長期間を持つようになると自動的に完成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体は生理的な成長で完成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自体に自律性と主管性があるからです。

植物の場合、体を作る栄養素が豊富な土壌に根がはり、そこから芽が出て必要な成分を吸収して成長させています。誰がさせてそうするのではなく、自らするのです。それが自律性です。一方、種の中には、将来の木になる設計図が入っていて、その設計図通りに体を育てます。銀杏は、銀杏の木だけを育て、くぬぎはくぬぎだけを育てます。それが主管性です。

人間も体は万物と同じ原理の道を経て完成します。生理的人間の完成は、自律性と主管性によって完成するのです。自律性と主管性による成長期間を間接主管圏とします。間接主管圏は完全に原理の力によって成長し、原理の力によって主管する領域であるため、それを原理結果主管圏とも呼びます。

(2) 인간의 책임분담

간접주관권에서 아담과 해와가 지켜야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창세기 2 장 17 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책임을 완수하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완전한 대상이 됩니다. 완전한 대상이란 완전한 주체인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와 동시에 첫째 날을 맞는 만물과 달리 본심을 통해 4대심정권을 완성함으로써 심정의 본체되시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翻訳】

(2) 人間の責任分担

間接主管圏でアダムとエバが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善惡の実を取って食べるな.' (創世記 2 章 17 節)という神様の御言です。御言を守って責任を成しとげれば、アダム、エバは神様の完全な対象になります。完全な対象というのは、完全な主体である神様の前に完全な対象という話です。

人間は創造と同時に最初の日をむかえる万物と違い、本心を通じて 4 大心情圏を完成することによって、心情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に似ます。神様と本質が同じ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

하나님도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라는 4대심정권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심정의 본체로 계시다는 말에는 4대심정권이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성장하면서 내적으로는 4대심정권을 완성한 심정의 본체를 닮은 실체가 되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몸을 통해서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는 때 하나님께서는 천주를 대표해서 아담에게 해와를 주고, 해와에게는 아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翻訳】

神様も子女の心情、兄弟の心情、夫婦の心情、父母の心情という 4 大心情圏を通じて成長してきました。神様が心情の本体としておられるという言葉には、4 大心情圏があるという意味が内包されています。

したがって、人間も成長して内的には 4 大心情圏を完成した心情の本体に似た実体にならなければならず、外的には体を通じて絶対性を守って、絶対性の本体に似た絶対性の実体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姿を備える時、神様は宇宙を代表してアダムにエバを与え、エバにはアダムを与え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生殖器の主人を許諾するという意味です。

하나님은 생식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상대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담, 해와를 지은 설계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이 생식기의 주인으로 상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인의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해와 안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일체가 되는 그 자리가 성정입니다. 거기에서 신인일체가 되는 것

입니다. 내적으로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는 것이 신인일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한 주체가 되고, 인간은 완전한 대상이 됩니다.

【翻訳】

神様は生殖器の主人が自分ではなく、相対であるという原則を立てました。それがアダム、エバを作った設計の法度です。それで主人であられる神様が、生殖器の主人である相対を立てるのです。その次に、その主人の本体が神様なので、神様がアダム、エバの中に入って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アダム、エバが神様の聖殿になるのです。他の説明が必要ありません。

絶対性を守って神様の絶対性と一体になるその場が聖殿です。そこで神人一体となるのです。内的に心情的に一体となることが神人一体です。そうすると、神様は完全な主体となり、人間は完全な対象になります。

완전한 대상은 완전한 주체의 직접주관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접주관권은 원리에 의해서 주관하지 않고 참사랑으로 주관하는 영역입니다. 참사랑의 주관권은 그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담, 해와의 몸 안에 들어가서 아담, 해와의 체를 쓰고 사랑하고, 체를 쓰고 주관하는 실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담, 해와가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게 됩니다. 천사까지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천사가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翻訳】

完全な対象は完全な主体の直接主管圏に入ることになります。直接主管圏は原理によって主管するのではなく、真の愛で主管する領域です。真の愛の主管圏は、ただ愛で対し、愛で治めるという意味ではなく、神様が直接アダム、エバの体の中に入って、アダム、エバの体を使って愛し、体を使って主管する実体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

その時から、アダム、エバがすべての被造物を主管することになります。天使までも主管することになります。そのような位置では、天使がいくら誘惑しても一線を越えて寝る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すでにアダム、エバは神様の実体となり、聖殿となったためです。

인격 창조

인간은 생리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도 생리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리적인 면에서 인간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을 통해 성장하여 완성한 몸을 이룹니다. 원리 안에 자율성과 주관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포함한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翻訳】

人格創造

人間は生理的な面と人格的な面を持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成長も生理的な面と人格的な面で同時に成り立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生理的な面で、人間は万物と同じように原理の自律性と主管性を通じて成長し、完成した体を成し遂げます。原理の中に自律性と主管性があります。人間の体を含む万物は、原理の自律性と主管性によって成長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식물의 경우 씨를 심으면 자동적으로 싹이 터서 성장해 갑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완성해서 다시 심으면 또 그런 성장과정을 반복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은 완성하기 위해서 질서적인 성장기간을 원리적으로 거쳐 것입니다. 그것은 씨 속에 모든 설계도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이 구상하신 설계도입니다. 인간에게 몸과 마음이 있듯이 만물에 몸과 마음이 있는 것도 그 설계도에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육신을 지니고 태어나면, 때를 맞추어 음식을 먹고 계절의 환경에 따라 추위와 더위에 대처하는 등 주위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성장하고 완성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도 그렇게 성장, 완성하는 것입니다.

【翻訳】

植物の場合、種を植えれば自動的に芽生えて成長してゆきます。花が咲いて実を結び、その実が完成して再び植えれば、また、そのような成長過程を繰り返して実を結びます。植物は、完成するために秩序的な成長期間を原理的に経ます。それは、種の中にすべての設計図が入っているためです。その設計図が、まさに神様が構想された設計図なのです。人間に体と心があるように、万物にも体と心があるのも、その設計図に従ったのです。

同じように人間も体を持って生まれれば、時を合わせて食物を食べて、季節の環境によって寒さと暑さに対処するなど、周囲の環境に適応して成長して、完成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万物が原理の自律性と主管性によって成長して完成するように、人間の体もそのように成長し、完成するのです。

그러나 인격적인 면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만물에 없는 영인체가 있습니다. 인격적 인간이라는 말은 영인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만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인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영인체의 완성은 인간책임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물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으로 완성하지만, 인간은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으로 성장하는 생리적 존재인 동시에 영인체를 완성해야 하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영인체를 완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책임분담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 책임분담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거쳐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분담입니다. 인간 책임분담은 인격을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翻訳】

しかし、人格的な面は違います。人間には万物にない霊人体があります。人格的人間というのは、霊人体があるという意味です。人間は万物が持っていない霊人体を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霊人体の完成は人間の責任分担によって成されます。

万物は原理の自律性と主管性で完成しますが、人間は原理の自律性と主管性によって成長する生理的存在であると同時に、霊人体を完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格的存在でもあります。

霊人体を完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まさに人間の責任分担なのです。また、神様を迎える位置に入ることが人間の責任分担です。それが人間が経なければならない最も重要な責任分担です。人間の責任分担は人格を創造するためのものです。

(3)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인간을 주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얻으려면 만물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고 창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주어 만물을 창조하는 대신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만물을 주관할 자격을 주시려는 배려입니다.

【翻訳】

(3) 人間に責任分担を授けた理由

神様は人間を創造されたので、創造主として人間を主管する資格があります。ところで、神様が人間に万物を主管しなさいといいました。それは人間が神様の子女であるためです。

人間が神様の子女になる資格と万物を主管する資格を得ようとするなら、万物を創造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人間は万物を創造しなかったし、創造する能力もありません。それで、神様は人間に責任分担を与えて、万物を創造する代わりに、神様もすることのできない自身の人格を自ら創造するようにされました。

た。それは、人間に神様の子女になる資格と万物を主管する資格を授けようとする配慮なのです。

人間이 스스로 인격을 창조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95 퍼센트 책임분담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5 퍼센트 책임분담입니다. 하나님의 책임분담과 인간의 책임분담을 정확한 수치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은 그만큼 크고, 거기에 비해 인간의 역할은 작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정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분담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그것은 100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몫 100 퍼센트가 인간책임분담입니다.

【翻訳】

人間が自らの人格を創造するには、神様が授けた御言を信じて、実践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御言を与えることが神様の 95 パーセントの責任分担で、その御言を信じて実践することが人間の 5 パーセントの責任分担です。神様の責任分担と人間の責任分担を正確な数値で区分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ここでは、神様の役割はそれだけ大きく、それに比べて人間の役割は小さいという意味で、そのように仮定しただけです。それでも人間の責任分担が軽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能力で問い詰めようとするならば、それは 100 パーセントに該当します。人間の役割の 100 パーセントが人間責任分担です。

人間이 책임분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여 절대성 자아주관을 성취할 때 인격이 창조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책임분담으로 자신의 인격을 창조함으로써 창조성을 갖게 되어 제 2의 창조주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위업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 위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인간 완성은 곧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부모(하나님)가 세운 창조이상도 자녀(인간)의 완성으로 성취됩니다. 자녀의 완성은 '절대성' 위에서 책임분담 해방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절대성을 완성하지 못하면 책임분담 해방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절대성을 완성해야 하나님의 책임분담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翻訳】

人間が責任分担として神様の御言を信じて実践し、絶対性の自己主管を成就する時、人格が創造されます。人間は自分自身の責任分担で自身の人格を創造することによって、創造性を持つようになり第 2 の創造主になります。それが、神様の創造の偉業に加担することなのです。それによって、神様は創造の偉業を完成することになります。人間の完成はまさに神様を完成させるのです。

父母(神様)が立てた創造理想も子女(人間)の完成によって成就します。子女の完成は'絶対性'の上において責任分担の解放圏を完成するのです。絶対性を完成できなければ、責任分担の解放圏は完成されません。人間が絶対性を完成してこそ、神様の責任分担も完成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주신 이유는 인격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95 퍼센트 책임분담으로 주신 말씀을 인간이 5 퍼센트 책임분담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서 말씀의 완성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100 퍼센트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의 책임분담 완성이므로 아담, 해와의 완성은 물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완성도 실현됩니다. 인간이 창조 위업에 가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조 위업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翻訳】

人間に責任分担を授けた理由は、人格を創造するためです。神様が 95 パーセントの責任分担として授けた御言を、人間が 5 パーセントの責任分担で実践して、その御言の通りに成し遂げて、御言の完成者になれば、神様の御旨が 100 パーセント完成されるのです。

アダム、エバの責任分担完成によってアダム、エバの完成はもちろん、父母であられる神様の完成も実現されます。人間が創造の偉業に加担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御旨も完成されるのです。創造の偉業は神様ではなく人間が完成するのです。

8.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人間を中心とする有形実体世界と無形実体世界

유형실체세계는 형체도 있고 실체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실체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형실체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인간을 중심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없으면 두 세계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라고 합니다.

【翻訳】

有形実体世界は形体もあり、実体もあるので、手で触ってみる事もでき、目で見ることもできます。しかし、無形実体世界は肉眼で見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ところが、無形実体世界は明確に存在します。

無形実体世界と有形実体世界は人間を中心として表現した言葉です。人間を中心にしなくては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人間がいなければ、二つの世界は互いに関係を結ぶことができません。それで題名を人間を中心とする無形実体世界と有形実体世界としました。

1) 무형실체세계의 존재 여부 無形実体世界の存在の有無

무형세계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궁금한 세계입니다. 사람은 무형세계의 존재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형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형실체세계라고 한 것입니다. 무형실체세계를 놓고 '무형세계'라고 하거나 '천상세계' 또는 '영계'라고 하는 등 저마다 달리 표현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형실체세계를 놓고도 '유형세계', '지상세계' 또는 '육계'로 저마다 달리 표현하지만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翻訳】

無形世界は見えないので非常に気になる世界です。人は無形世界の存在の有無をおいて論争を行ったりもします。しかし、無形世界は明確に存在します。それで無形実体世界といったのです。

無形実体世界を置いて無形世界と言ったり天上世界または靈界と言うなど、各々別に表現はしますが、それらはすべて同じな意味です。同じように有形実体世界を置いても有形世界,地上世界または肉界という各々別に表現をしますがそれも同じ意味です。

흔히 영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 즉 '사후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계를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그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영계는 육계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계는 보이고, 영계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바로 놓았을 때는 손등만 보입니다. 그렇다고 손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손바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손등과 손바닥 둘을 합해서 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세계에는 보이는 육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는데. 그 두 세계는 하나입니다. 두 세계를 합해서 천주라고 합니다.

영계는 존재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를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리라면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영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계가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翻訳】

よく靈界は死んでから行く世界. すなわち'死後の世界'といえます。しかし靈界を死後の世界ということは適切な表現ではありません。靈界は死んでから行く世界ではなく、私たちが現在その世界のために生きているのです。靈界は肉界とまさに連結されています。肉界は目に見えて、靈界は見えないだけです。靈界と

肉界が別々に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手を置き直した時は手の甲だけが見えます。それでも手の甲だけ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見えることはないけれど、手の平もあります。なので手の甲と手の平が一緒にあるのです。手の甲と手の平の二つを合わせて手といいます。同じように被造世界には見える肉界があり、見えない霊界があって。その二つの世界は一つです。二つの世界を合わせて宇宙といいます。

霊界は存在しますが、肉眼では見られないので、その世界をないと言否定する人が多いのです。真理ならば、あるものはあると言、ないものはないと言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肉眼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けれど、霊界は明確に存在するので‘霊界がある’というのが真理です。

(1) 창조원리로 보아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무형실체세계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원리에 따르면 피조세계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확대해 놓은 것이 우추입니다.

인간의 보이는 몸을 확대해 놓은 것이 유형실체세계입니다. 유형실체세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는 유형이고 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자연계, 또는 지상세계라고 합니다.

【翻訳】

(1) 創造原理で見ると

神様の創造を見る時、無形実体世界の存在が分かります。創造原理によれば被造世界は二重構造になっています。

本性相と本形状の中和的統一体としておられた神様が、御自身に似た人間を作りました。それに先立ち、神様は御自身に似た人間をモデルとして森羅万象を作りました。そのために、神様に似た人間を拡大しておいたのが宇宙なのです。

人間の見える体を拡大しておいたのが有形実体世界です。有形実体世界は目で見ることができ、触って見ることができ、感じることもできます。しかし、その世界は有形であり、実体になっているので限界性を有しています。その世界を自然界、または、地上世界といいます。

한편 인간에게는 몸의 주체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세계를 확대해 놓은 것이 무형실체세계입니다. 마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듯이 무형실체세계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체로 존재합니다.

마음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무한히 커질 수도 있고 무한히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세계를 무형실체세계, 곧 영계라고 합니다. 영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도 됩니다.

【翻訳】

一方、人間には体の主体となる心があります。心は見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けれど、格好を有しています。その心の世界を拡大しておいたのが無形実体世界です。心が見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けれど、まちがいなく存在するように、無形実体世界も見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けれど、明確に実体として存在します。

心は形体を有していないために、どこにも拘束されません。無限に大きくなる事もできるし、無限に小さくなることもできます。その心の世界を無形実体世界、すなわち霊界といいます。霊界は神様が創造した宇宙全体を代表する位置にもなります。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지어 놓은 유형실체세계와 무형실체세계의 두 세계로 구분되지만 그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구조적으로는 마음과 몸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

형실체세계와 무형실체세계도 두 세계로 구분되지만 실체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를 묶어서 천주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공을 하늘이라 하고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을 땅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은 영계를 뜻하고 지는 육계, 곧 자연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영계와 육계, 곧 천주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翻訳】

神様に似た人間を標本として造っておいた有形実体世界と無形実体世界の二つの世界に区分されますが、それらは一つです。人間が構造的には心と体で区分されますが、一つになっているのと同じことです。有形実体世界と無形実体世界も二つの世界に区分されますが、実体としては二つではなく一つです。その無形実体世界と有形実体世界をまとめて宇宙といいます。

創世記 1章 1節に'神様が天地を創造し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一般的に青空のことを天といい、二本の足で踏んで生きる所を地と言いますが、ここで話す天地は天と地を意味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天は靈界を意味しており、地は肉界、すなわち自然界を意味します。神様が宇宙の初めに天地を創造したという意味は靈界と肉界、すなわち宇宙を創造したという意味です。

영계와 육계의 관계성을 볼 때 영계는 무한한 세계이고, 지상세계는 유한한 세계입니다. 영계는 영원성을 가졌고, 지상세계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100년을 산다면 100년은 영원한 세계인 영계에 비해 수억만 분의 1초도 안 됩니다. 영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육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원인의 세계는 시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의 세계는 그것이 실체로 전개되어 나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실체세계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체인 무형실체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입니다.

【翻訳】

靈界と肉界の関係性を見る時、靈界は無限の世界であり、地上世界は有限な世界です。靈界は永遠性を持っており、地上世界は瞬間に過ぎません。私たちが地上世界で100年を生きるならば、100年は永遠の世界のである靈界に比べて数億万分の1秒にもなりません。靈界は時間と空間を超越しており、肉界は時間と空間の制約を受けます。

原因の世界は時空がありません。ところが結果の世界は、それが実体に展開して出てきたので、時間と空間性を有しています。それで有形実体世界には限界があり、時間と空間の制約を受けます。ところが主体である無形実体世界には限界がありません。そこは無限であり、永遠であり、時間と空間を超越したところです。

하나님이 무형의 실체로 계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모든 존재를 지었습니다. 실체를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무형의 실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유형의 실체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라는 실체는 한계성을 갖기 때문에 영원성을 지닌 영인체를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인간에게 영원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지상에서 영인체 하나를 완성시켜놓고 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며 산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미를 돌리는 효자와 효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지상천국이고 천상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翻訳】

神様が無形の実体としておられ、喜ばれるためにすべての存在を造られました。実体を持っている神様ですが、無形の実体としておられるので、その対象に有形の実体を造りました。ところで肉身という実体は限界性を持つものであり、永遠性を持った靈人体を人間に付与されました。人間に永遠性を授けたのです。そ

れで肉身は地上で霊人体一つを完成させて、土に戻るのです。

神様がそのように造ったので、地上で神様に侍り、神様に喜びを返して生きた人間は、霊界に行っても永遠であるように、神様の愛を受けて神様に喜びと美を返す孝行息子と孝行娘として生きるのです。その世界が地上天国であり、天上天国です。天国という世界が別々に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천국의 중심은 부자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근본 요소는 참사랑인데 거기에서 효도가 나옵니다. 효도는 심정을 뿌리로 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효도 자체가 한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고도 더 주고 싶고 효도를 하면서도 더 기뻐하고 효성스러운 마음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동기가 심정입니다. 기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기쁨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중구조로 지었고, 그 인간을 확대해서 전개시킨 세계가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입니다.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천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주라는 개념밖에 없어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라는 말은 원리로 볼 때 보이는 세계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똑같은 무형의 우주인 무형실체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소천주라고 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翻訳】

天国の中心は父子関係です。父母と子供の根本要素は真の愛なので、そこから親孝行が現れます。親孝行は心情を根元にしてなされるので、終わりがありません。親孝行自体が限界性があ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絶えず与えても、もっと与えたくて、親孝行をしながらも、さらに喜んで態度に真心がこもっている心が、絶えずほとばしり上がることができる動機が心情です。喜びの主人であられる神様が永遠の方なのでその喜びも永遠なのです。

神様が人間を二重構造で作し、その人間を拡大して展開させた世界が無形実体世界と有形実体世界です。二つの世界を総合した実体相が天宙です。今までは宇宙という概念しかなくて、人間を小宇宙だと表現しました。宇宙という話は原理で見る時、見える世界だけを表現した話です。それなので、宇宙と同じ無形の宇宙である無形実体世界があるのです。そのために人間を小天宙といってこそ神様が作られた本来の価値をきちんと表現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

히브리서 8 장 5 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실체세계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하나 되는 자리가 정오정착입니다.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의 두 세계를 천주라고 했을 때 인간은 천주의 중심 존재입니다. 인간이 제외되면 천주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두 세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천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翻訳】

ヘブル書 8 章 5 節に'その人たちは、天にあるものの写しと影とに仕えている'とあります。天にあるものの写しと影が、この世であるという話です。なので無形実体世界も見えることはないけれど、実体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実体があるので影ができるというのに、影は実体が動けばすぐに付いて回ります。実体と影が一つになる位置が正午定着です。

無形実体世界と有形実体世界の二つの世界を天宙という時、人間は天宙の中心存在です。人間が除外されれば天宙は何の意味もなく、何の価値もありません。価値があるといっても、それ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存在がいないので価値があらわれません。それで人間を中心として二つの世界が展開されるのです。

そのような意味で見る時、天宙における人間の位置は絶対的なのです。

첫째로 인간은 천주총합실체상입니다. 육신은 유형실체세계를 총합, 축소한 실체상이고, 영인체는 무형실체세계의 모든 요소와 속성을 총합한 실체상입니다. 인간 개체는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인 것입니다.

【翻訳】

第一に人間は天宙総合実体相です。肉身は有形実体世界を総合、縮小した実体相であり、霊人体は無形実体世界のすべての要素と属性を総合した実体相です。人間の個体は霊人体と肉身でできているので、人間は天宙を総合した実体相なのです。

둘째로 인간은 두 세계를 화동시키는 중간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하면 두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인체는 무형실체세계와 주고받고, 육신은 유형실체세계와 주고받으면서 인간 자체의 영인체와 육신이 주고받으니 결국 인간은 두 세계를 화동시키고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무심코 보면 공간 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 주변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생명체는 하나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는 있습니다. 공기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기파도 가득 차 있습니다.

【翻訳】

二番目に、人間は二つの世界を和動させる中間媒介体であり、和動の中心体です。なので、人間を除けば、二つの世界には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霊人体は無形実体世界と授け受けして、肉身は有形実体世界と授け受けして、人間自らの霊人体と肉身が授け受けするので、結局、人間は二つの世界を和動させるのにおいて媒介となる存在なのです。

なにげなく見れば空間自体は見えないために、そこには何もないように思います。しかし、地球周辺には空気がぎゅっと詰まっています。それで生命体が存在します。空気がなければ生命体は一つも存続できません。見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けれど空気はあります。空気だけでなく各種電磁波もぎゅっと詰まっています。

지구상의 크고 작은 나라는 다 방송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방송국도 있고 라디오 방송국도 있습니다. 각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뉴스나 어떤 가수의 노래가 전파로 바뀌어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의 KBS, MBC, 일본의 NHK, 미국의 CNN 등 방송 매체들은 쉬지 않고 그런 첩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라디오나 TV가 그 전파를 소리나 화상으로 바꾸어 시청자의 귀나 눈으로 전달하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면 영상과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두 세계를 화동시키고 연결시켜 주는 중간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춰서 TV를 시청하는 것처럼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를 맞춰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를 총합하는 실체상도 되지만, 두 세계를 화동시키는 매개체입니다.

【翻訳】

地球上の大小の国は、みな放送局を持っています。TV放送局もあり、ラジオ放送局もあります。各放送局で送り出すニュースや様々な歌手の歌が電波に変わって宇宙空間を飛び交っています。

韓国のKBS, MBC, 日本NHK, アメリカのCNNなど放送媒体は休むことなく、そのような電波を作り出します。ここで、ラジオやTVが、その電波を音がする画像に変えて視聴者の耳や目に伝達する中間媒介体の役割をします。周波数を合わせれば、映像と音を見聞き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同じように人間も二つの世界を和動させて結びつける中間媒介体になるのです。周波数を合わせてTVを視聴するように、無形実体世界と有形実体世界を合わせてみることができる存在が人間です。それで人間は二つの世界を総合する実体相となるばかりでなく、二つの世界を和動させる媒介体なのです。

셋째로 인간의 위치는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 두 세계의 주관주입니다. 따라서 천주에서 인간

의 위치는 천주총합실체상이자중간매개체이고 두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주입니다.

유형실체세계는 육신을 확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은 유형실체세계를 주관하고, 무형실체세계는 영인체를 확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인체는 무형실체세계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翻訳】

三番目として、人間の位置は無形実体世界と有形実体世界、二つの世界の主管主ということです。したがって宇宙における人間の位置は宇宙総合実体相二者中間媒介体であり、二つの世界を主管する主管主です。

有形実体世界は肉身を拡大した世界であるので、肉身は有形実体世界を主管し、無形実体世界は靈人体を拡大した世界であるので、靈人体は無形実体世界を主管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れなので、人間は二つの世界を主管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육신에는 육적오관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봅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외부의 자극을 감지합니다. 오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휼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오관을 가지고 유형실체세계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고장 나면 그 고장 난 분야에 해당하는 자연세계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눈이 고장 나서 시각을 잃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귀가 고장 나서 청력을 잃으면 아무리 조화로운 멜로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관을 통해서 유형실체세계를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翻訳】

肉身には肉的五官があります。目で見て、耳で聞いて、鼻でおいをかいで、口で味わいます。皮膚を通じて外部の刺激を感知します。五官を通じて世の中を見聞きして感じて、体恤して、悟るのです。人間は肉身の五官をもって有形実体世界を主管します。

それなので、肉身が故障すれば、その故障した分野に該当する自然世界を主管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目が故障して視覚を失えば、いくら美しいのがあっても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耳が故障して聴力を失えば、いくら調和のとれたメロディも聞くことができません。人間は五官を通じて有形実体世界を主管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육신의 주체가 되는 영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인체에도 영적오관이 있습니다. 영적오관이 있기 때문에 영인체가 성장해서 완성하면 무형실체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도 볼 수가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맛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영인체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합니다. 육신은 벗고 영계에 가면 영인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잘 모릅니다.

【翻訳】

肉身の主体となる靈人体も同じことです。靈人体にも靈的五官があります。靈的五官があるので、靈人体が成長して完成すれば、無形実体世界を主管できるのです。靈界でも見ることができ、声も聞くことができ、臭いもかぐことができ、味も見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世界を感知することもできます。靈人体は見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けれど、存在します。肉身を脱いで靈界に行けば靈人体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肉身の中にある時は、その存在がよく分からないです。

지상에서 육신을 지니고도 가끔 자기의 영인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언제나 영인체가 자기 자신보다 앞서 간다고 합니다. 영인체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지 나쁜 것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악령들이 있으면 벌써 영인체가 느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소름이 돋는다고 무언가에 깜짝 놀라는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인체가 육신의 주체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翻訳】

地上で肉身を持って過ごしても、時々、自らの霊人体を見る人がいます。彼らの話によれば、いつも霊人体が自分自身より先んじるといいます。霊人体は善良で、義に徹したことをは探して行こうとするのですが、悪いことを探して行こうとはしません。

そのために、周辺に悪霊がいれば、すぐに霊人体が感じるのです。肉身に鳥肌が立つとか、何かにびっくりする刺激がくるのです。それは霊人体が肉身の主体であり、中心であるためです。

영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훈련을 통해 완성해야 합니다. 영인체가 가서 살 수 있는 천국은 선한 세계요. 사랑의 세계이니, 육신 쓴 지상의 가정에서 사랑을 완성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심정의 훈련은 받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가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영인체가 사는 곳은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지상생활이 중요합니다.

【翻訳】

霊界は愛の世界です。愛は地上で肉身を使って、訓練を通して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霊人体が行って住むことができる天国は、善なる世界です。愛の世界であり、肉身を使う地上の家庭で、愛を完成し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家庭が天国の核心なのです。家庭で愛と心情の訓練は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て、完成できない人は霊界に行って生活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霊人体が住む所は愛の世界です。その世界のために地上生活が重要なのです。

나무로 말하면, 육신은 줄기와 가지 또는 잎과 같고, 영인체는 가지에 달려 있는 열매와 같습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완숙해야 떨어집니다. 육신은 노쇠하면 흙으로 가고 열매와 같은 영인체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翻訳】

木をもって話すと、肉身は幹と枝または、葉と同じで、霊人体は枝にかかっている実と同じです。実は木で花が咲いて、実が熟して完熟してこそ下に落ちます。肉身は老いぼれれば、土に帰り、実と同じ霊人体は神様の前に行って永生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それでマタイ福音書 16章 19節とマタイ福音書 18章 18節を見れば、'何でも地で結ぶことは天でも結ばれ、何でも地で解くことは天でも解かれる。'と語られました。

우리는 지상에서 사랑의 의해 태어나서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완성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결혼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참사랑의 완성자입니다.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었을 때 그 영인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翻訳】

私たちは地上で愛によって生まれ、愛によって成長し、愛によって完成して行きます。神様の愛を完成するようにさせるためには結婚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天にいらっしゃる父が完全なように、完全になるために、結婚して完全な人として帰って行くのです。

完全な人とは真の愛の完成者です。真の愛の完成者になるためには、神様の愛を所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真の愛の完成者になる時、その霊人体が天国に行って神様と共に生活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가 완숙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 열매는 창고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완숙하지 못하고 떨어진 과일은 쓰레기통에 버리집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육신을 지니고 영인체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인체는 하나님이 원래 소망했던 세계, 천국에 못 들

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실 때는 쓰레기통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원리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翻訳】

木にかかっている実が、完熟することができずに落ちれば、その実は倉庫に保存できません。言い換えれば、商品としての価値がありません。完熟することができずに落ちた果物は、ゴミ箱に入れて捨ててしまうからです。人間が墮落して、肉身を持って霊人体を完成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に、その霊人体は神様が本来、希望した世界、天国に入れませんでした。神様が迎える時は、ゴミ箱に行ったのです。それが地獄です。原理のとおり建て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ために価値がありません。

자녀가 본연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한 하나님도 부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복귀섭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翻訳】

子女が本来の位置に立たない限り、神様も父母の位置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れで、人間を子女の位置に引き上げるための神様の摂理が、復帰摂理なのです。ペテロ第2の手紙3章9節に'ただ、ひとりも滅びることがなく、すべての者が悔改めに至ることを望み、あなたがたに対してながく忍耐しておられるのである。'と記録されています。

부부가 만나 사랑하며 사는 곳에서는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서 완숙해야 합니다. 사과를 보면,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 속에 있는 작은 씨방이 점점 자라서 커집니다. 조그마한 씨방이 꽃잎 속에 있다가 자라나 큰 사과가 됩니다. 그 사과가 다 컸다고 해서 완숙한 것이 아닙니다. 따먹어 보고 맛이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겉모습은 갖추었더라도 사과의 맛이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장했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아들딸의 맛이 들어야 합니다. 그 맛이 사랑의 인간입니다. 사랑의 인간은 아버지 앞에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사랑의 향기입니다.

【翻訳】

夫婦が出会って、愛しあい、そして住む所では愛の花が咲いて、実を結び、完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リンゴを見れば、花びらが落ちれば、花びら中にある小さな子房がますます育って大きくなります。小さい子房が、花びら中であって育って、大きなリンゴになります。そのリンゴが大きくなったといって、完熟したのではないです。取って食べてみて、まずければゴミ箱に捨てることになります。

外見は備えたとしても、リンゴの味がよくなくてはいけません。人間も同じことです。みな成長したとしても、神様が作られた本然のの息子、娘の味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味が愛の人間です。愛の人間はお父様の前に親孝行をつくるのです。親孝行は愛の香りです。

가정은 천주의 핵심체이고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가정을 중심한 삶은 사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확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대기소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숙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열매가 다 커서 완숙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쪽정이는 못 들어갑니다. 열매가 다 컸다고 해서 쪽정이가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 컸더라도 완숙하지 못한 열매는 쪽정입니다.

【翻訳】

家庭は宇宙の核心体であり、世界の中心となります。家庭を中心とする人生は、社会と連結されるので、そのような心を拡大して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生活をすれば天国に行きますが、そうでない人は天国に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天国の待機所に行くのです。天国は完熟した人が行く所です。実が大きくなって完熟した人だけが入ります。中身の無いものは入れません。実が大きくなったといって、中身のな

いものではないという法はありません。大きくなったとしても、完熟することが出来なかった実は、中身の無いものです。

버겁질 속에 달콤한 물이 들어 있지만, 그 달콤한 물이 완숙하지 못하면 버겁질은 말라서 쪼그라들어가 됩니다. 바람결에 날아갑니다. 열매가 될 요소는 다 마련하고 있더라도 버겁질의 운명은 그 요소를 완숙시켰느냐 완숙시키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翻訳】

稲皮の中に甘い水が入っていますが、その甘い水が完熟することができなければ、稲皮は乾いて中身の無いものになります。風によって飛んで行ってしまいます。実になる要素はみな用意されていても、稲皮の運命はその要素を円熟させたか、円熟させられなかったかにかかっています。

인간 속에는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 영인체를 완숙시켰느냐, 완숙시키지 못했느냐의 문제는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의 생활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영계에 가면 지옥의 맨 밑창에는 음란한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생식기를 자기 마음대로 굴렸기 때문에 지옥의 맨 밑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함부로 취급한 사람이 갑니다. 자살한 사람, 남의 생명을 죽인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翻訳】

人間の中には霊人体があります。その霊人体を円熟させることができたか、円熟させられなかったかの問題は、肉身を持っている時の生活で決まります。それで自らの生命を疎かにしてはいけません。

霊界に行けば、地獄の一番底には淫乱な人が行きます。神様が宿る偉大な生殖器を、自分思いのままに使ったので地獄の一番底へ行くです。その次に、生命をむやみに取り扱った人が行きます。自殺した人、他人の生命を殺した人が地獄へ行くのです。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가 견디기 어렵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됩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 육신을 지니고 완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발도 붙일 수 없습니다.

【翻訳】

生命は自分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ものです。自分が、耐え難いといって自殺してはいけません。自分の欲求を満たすために、他人の生命をむやみに死なせてもなりません。

生命はこの地で肉身を持って完成するように与えられたものです。それなので、霊人体が完成されるまでは、死ぬ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ような人は天国に足を付けることもできません。

(2)성서로 보아

성서로 봐도 영계가 있습니다. 영계가 없다면 영인체를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고 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인체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翻訳】

(2)聖書を見て

聖書を見ても霊界が存在します。霊界がないならば、霊人体を創造する必要がありません。創世記2章7節に'エホヴァの神様が土の塵で人を形づくり、その鼻に命の息を吹き入れられた。人はこうして生きる者となった。'と語られています。鼻に命の息を吹き入れたはという話は、神様が人間に霊人体を与えたという意味です。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

의 몸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으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은 보이는 육신을 말하고, 신령한 몸은 원리로 말하면 영인체입니다. 육신의 생활은 전부 영인체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육신의 생활 전체가 그대로 속사람 영인체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인체에 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신령한 몸은 바로 영인체입니다. 앞에서 지상생활이 영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육의 몸에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말은 육신과 영인체의 삶이 일체가 되는 생활을 뜻합니다.

【翻訳】

コリント人への手紙 15 章 44 節で‘肉の体に植えて、神霊な体で再び生き返るので、霊の体もあった。つまり、霊の体もあるのだ’と語られています。聖書に肉の体があり、神霊な体があって、肉の体に植えて神霊な体で再び生きると言いました。肉は見える肉身を意味し、神霊な体は原理で言せば霊人体です。

肉身の生活は、全部霊人体にそのまま記録されます。肉身の生活全体がそのまま、中の人である霊人体に植えられるのです。今まで霊人体に対することを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が、そのような神霊な体は、まさに霊人体です。先に地上生活が霊界を決定すると言いました。したがって肉の体に植えて、神霊な体で再び生きるという言葉は肉身と霊人体の人生が一体となる生活を意味します。

전도서 12 장 7 절에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흠의 요소이기 때문에 노쇠하면 흠으로 가지만, 속사람인 영인체는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완성해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翻訳】

伝道の書 12 章 7 節に‘ちりは、もとのように土に帰り、霊はこれを授けた神に帰る前に記憶される。’と語られました。肉身は土の要素なので、老いれば土に帰りますが、中の人である霊人体は神様から来たもので、完成して神様に戻るものなのです。

마태복음 17 장 1 절에서 10 절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약 1600 년 전에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900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900 년 전, 1600 년전 사람과 예수님이 지상에서 대화했다는 것은 육신은 없어졌지만 엘리야와 모세의 영인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9 장 4 절에 보면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2 장 20 절에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셔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계의 예수님이 실체를 지닌 요한과 영적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모두가 영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翻訳】

マタイ福音書 17 章 1 節から 10 節に変貌の山でモーセとエリヤがイエス様とお言葉を交わす姿で描写されています。モーセはイエス様より約 1600 年前に死んだ人であり、エリヤはイエス様より 900 年前に死んだ人です。900 年前、1600 年前の人とイエス様が地上で対話したというのは、肉身はなくなったが、エリヤとモーセの霊人体があるという意味です。

また、使徒行伝 9 章 4 節を見ればサウルが‘サウルや、サウル! おまえがどうして私を迫害するのか?’と語られるイエス様の声を聞きます。ヨハネ黙示録 22 章 20 節には、イエス様が‘真にすぐに来るであろう。’とおっしゃり、‘主イエス様、来たりませ。’とおっしゃっ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それは霊界のイエス様が実体を持ったヨハネと霊的に交わした対話です。

すべてが霊界の実体を語っているのです。

2) 인간의 3 단계 생활

人間の 3 段階の生活

인간은 모태에서 태어나서 지상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3 단계로 되었고, 3 단계로 완성합니다.

【翻訳】

人間は母胎で生まれ、地上生活をします。そして霊界に行って永生するのです。神様の創造は3段階になっており、3段階で完成します。

(1) 모태생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씨가 어머니의 난자와 만나서 성장합니다. 태아는 열 달 동안에 복중에서 지상생활을 준비합니다. 태아가 지상에 나와서 살 수 있도록 복중에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열 달입니다. 그 기간 동안 태아는 태반을 통하여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거기에서 태아가 주체이고 태반은 대상입니다.

뱃속의 태아는 양수라는 무속에서 성장합니다. 양수가 부족하면 아기는 살길이 없습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는 물속에서 완성됩니다. 태내의 생활은 수중생활입니다. 태아는 수중생활에서 10개월 동안 지상생활을 준비합니다.

【翻訳】

(1) 母胎生活

父親と母親の愛によって子供が生まれます。父親の生命の種が、母親の卵子と出会って成長します。胎児は10ヵ月の間に、腹中で地上生活を準備します。胎児が地上に出てきて生きられるように、腹中ですべての機能を備えて完成するのです。その期間が10ヵ月です。その期間の間、胎児は胎盤を通じて母体から栄養分を供給され、老廃物を排出します。それで胎児が主体であり、胎盤は対象です。

腹中の胎児は羊水という水中で成長します。羊水が不足すれば、赤ん坊は生きる道がありません。胎中にいる赤ん坊は、水の中で完成されます。胎内の生活は水中生活です。胎児は水中生活で10ヵ月の間、地上生活の準備をします。

(2) 지상생활

태아가 완성되면 양수가 먼저 티집니다. 양수가 티지면 아기가 나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도 하나님이 지으신 설계도와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뱃속에 있던 태아가 완성되어 밖으로 나오면 아기를 키운 태반은 흙으로 돌아가고 지성에서는 아기만 성장하게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지상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翻訳】

(2) 地上生活

胎児が完成されれば羊水が、まず破水します。羊水が破水すれば、赤ん坊が出てきます。赤ん坊が生まれる過程も神様が造られた設計図と原理に従ったのです。腹中にいた胎児が完成されて、外に出てくれば、赤ん坊を育てた胎盤は土に帰り、地上では赤ん坊だけ成長することになります。赤ん坊が腹中から出てきて地上生活が始まるのです。

아기는 태어나면서 육신과 영인체를 지닙니다. 육신이 생기는 그 시간에 영인체도 같이 형성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육심이 있고 영인체에는 생심이 있는데, 육심과 생심의 수수작용으로 육신과 영인체는 성장합니다.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지상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100년으로 영계생활의 준비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의 슬하에서 사춘기를 거치면서 개성을 완성하고 결혼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가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참사랑을 완성하고 사대심정권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翻訳】

赤ん坊は生まれながら、肉身と霊人体を持ちます。肉身が生じるその時間に、霊人体も一緒に形成されて出発するのです。肉身には肉心があり、霊人体には生心がありますが、肉心と生心の授受作用によって肉身と霊人体は成長します。人間が肉身を持って地上で生活する期間は 100 年であり、霊界生活の準備期間です。

その期間に、赤ん坊として生まれ、父母の膝下で思春期をたどりながら、個性を完成して、結婚して完全になるのです。霊界が愛の世界であるので、地上で真の愛を完成して、4 大心情圏を完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개성완성은 절대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함축해서 말하면 절대성을 지키서 완성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개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인격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분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책임분담을 완성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반쪽이 또 하나의 반쪽을 만나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방해 드리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번식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翻訳】

個性完成とは絶対性を守ることです。含蓄して話せば、絶対性を守って完成した時に、初めて人間は個性を完成するということです。人はまず、人格を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責任分担を完成することです。責任分担を完成した後に、男性と女性が出会って結婚するのです。

半分が、もう一つの半分に会って、完全になるために、神様の真の愛を完成させて、神様の愛を解放して差し上げるために結婚するのです。そして神様の子女を繁殖するために結婚するのです。天にいらっしゃるお父様が完全なように、完全になるために結婚するのです。

결국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온전한 영인체를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온전한 영인체가 되어 영계로 들어가려면 여자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의 양성과 음성, 그리고 성상과 형상이 통일체로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때는 부부가 되어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翻訳】

結局、神様に似るために結婚するのです。一人では絶対に神様に似ることはできません。天におられるお父様のよう、完全な霊人体を持って帰るべきなのであり、それがまさに二人が一つになることなのです。

男性が完全な霊人体となり、霊界に入るためには、女性を通じるほかはありません。女性も同じことです。神様の中にある陽性と陰性、そして性状と形状が統一体を成し遂げているように、神様から分立して出てきた男性と女性も、神様の中に戻る時には、夫婦となって統一体を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そうなることのできなかつた人は、天国で神様と一緒に暮らすことができません。それで結婚をするのです。

본연의 가치를 놓고 볼 때 결혼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완성하면 자기도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완성되겠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만난다면 상대가 그 자리에 서 주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자기도 완성이 안 되고, 상대도 완성이 안 됩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결혼한다. 상대를 완성시키려고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완성하고 나도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역설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 장 11 절)고 했습니다.

【翻訳】

本然の価値をおいてみる時、結婚は自分のために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相対を完成させるためにするのです。相対が完成すれば、自分も完成されるという意味です。自分が完成されるということを考えて相対に会うならば、相対がその位置に立たないです。

相対がなければ自分も完成されなくて、相対も完成されないのです。’相対のために私が結婚する。相対を完成させようとするために、私がこの位置に立った。’という考えで相対に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すると相対も完成し、私もその位置に立つのです。聖書にはこれを逆説的に’...自分を高める者は低められ、自分を低くする者は高められるだろう。’(ルカ福音 14 章 11 節)と言っていました。

지상생활 100 년은 육신을 쓰고 영인체를 완성하는 기간입니다. 복중에서 태반을 통해 아기가 완성해 나오는 것처럼 지상생활은 참사랑과 4대심정권을 완성하여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기 위한 영계 생활의 준비 기간입니다. 완성하려면 성장기간에 완숙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완성 속에는 완숙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翻訳】

地上生活 100 年は肉身を使って霊人体を完成する期間です。腹中で胎盤を通じて赤ん坊が完成して出てくるように、地上生活は真の愛と 4 大心情圏を完成して神様の中に戻るための霊界生活の準備期間です。完成するためには成長期間において円熟の位置に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完成という言葉の中には円熟という意味が入っています。

(3) 영계생활

지상에서 참사랑과 4대심정권을 완성한 다음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면 그 영인체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영계에 가서도 사랑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사랑을 느끼고 체휼하며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가서 자기의 기준에 맞는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이 되어 영계로 갈 때 치르는 의식을 장례식이라 하지 않고 성화예식이라고 합니다. 장례식과 성화예식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 자가 산 자를 생명의 주인에게 보내는 의식이 성화예식이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사망의 주인에게 보내는 의식이 장례식입니다.

【翻訳】

(3) 霊界生活

地上で真の愛と 4 大心情圏を完成した後、肉身を脱いで霊界に行けば、その霊人体は永生を得るようになります。その世界は愛の世界です。霊界に行っても、愛の中で生きるのです。それで地上で愛を感じて、体恤して、完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人は、霊界に行って自らの基準に合う位置に降り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地獄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完全な姿になって霊界に行く時、執り行うを儀式を葬礼式といわないで、聖和礼式といいます。葬礼式と聖和礼式には差異点があります。生きた者が生きた者を生命の主人に送る儀式が聖和礼式であり、死者が死者を死亡の主人に送る儀式が葬礼式です。

마태복음 8 장 21 절에서 22 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에게 청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말기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은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자' 는 제자의 아버지 시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이나 동네 사람도 죽은 자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아버지의 시체도 죽은 자라 했고, 동네 사람도 죽은 자라 했습니다. 죽음의 개념을 두 종류로 분류한 것입니다.

【翻訳】

マタイ福音 8章 21節から 22節までを見れば、イエス様の弟子が'主よ、私がまず先に行って、私の父親を弔うことを許諾してください'とイエス様に求めると、すぐにイエス様は'死者で、私どもの死者を弔うようにして、あなたは私に従ってき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イエス様は'死者は死者に任せ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

ここでイエス様は死んだという概念を二種類に分類したことが分かります。最初の'死んだ者'というのは、弟子のお父さん死体をいいます。その次に、親戚や街の人々も死者と見ました。このように、私がお父さんの死体も死者と言ひ、街の人々も死者といいました。死の概念を二種類に分類したのです。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사망의 주인 앞으로 보내는 의식이 장례식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사망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은 죽었지만 영인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 영인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를 영계로 보내고 육신은 땅에 묻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축복가정이라면 그건 산 자가 산 자를 생명의 주인 앞으로 보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화예식은 산 자가 산 자를 생명의 주인에게 보내는 의식이고, 장례식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사망의 주인에게 보내는 의식입니다.

【翻訳】

死者が死者を死亡の主人の前に送る儀式が葬礼式です。生命の主人は神様であり、死亡の主人はサタンです。神様の子女として生きた人が死んだとすれば、その人は肉身は死にましたが、霊人体は生きています。その霊人体は永遠の神様の中に戻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彼を霊界に送り、肉身は土に埋めるべきなのに、その事をする人が祝福家庭ならば、それは生きた者が生きた者を生命の主人の前に送る儀式なのです。それで聖和礼式は生きた者が生きた者を生命の主人に送る儀式であり、葬礼式は死者が死者を死亡の主人に送る儀式なのです。

성화예식이란 영계에 갈 때의 예식만이 아닙니다. 기원절부터는 참부모님 승리권의 은사로 말미암아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참생명의 인간으로 생기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참부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전체의 과정을 총정리하는 예식을 성화예식이라 합니다.

성화예식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 달이나 백 년이 아니라 영생하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히 감사하면서 사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상충과 고통이 없습니다. 상충과 고통이 있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동안 상충과 고통을 다 씻어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6-18 절)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翻訳】

聖和礼式というのは霊界に行く時の儀式だけではありません。基元節からは真の御父母様の勝利権の恩賜によって、腹中から神様の子女、真の生命の人間として生まれ、成長して真の夫婦となり、神様の子女として帰るようになります。その全体の過程を総整理する儀式を聖和礼式といいます。

聖和礼式が終われば、その次からは 10 ヶ月や百年ではなく、永生することになります。永生は神様に侍り、永遠に喜んで生きることです。その世界は、永遠に感謝して生きる天国です。天国では相反と苦痛がありません。相反と苦痛がある所は地獄です。そのために地上にいる間に相反と苦痛を、みな洗い落とし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聖書には'常に喜びなさい。休まずに祈りなさい。凡事に感謝しなさい。'(テサロニケへの手紙 5章 16-18節)と書かれています。私の心が神様に侍り感謝して喜んで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은 양수 속과 공기 속의 삶을 마치고 완전한 모습으로 영계에 가면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수중, 기중, 애중에서 생활합니다. 사랑으로 생기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완성해서 사

랑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났다는 자체가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잘 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翻訳】

人間は羊水の中と空気の中の人生を終えて、完成した姿で霊界に行けば、愛中で生きることになります。人は水中、空中、愛中で生活します。愛によって生まれ、愛によって成長し、愛を完成して、愛の世界へ帰ることが、私たちの人生の道です。

人間が生まれた目的は、よく死ぬためです。生まれたというのは、死を前提にするという意味です。死なない人は誰もいないのです。そのように、どんな人も、誰彼を問わず、生まれたということ自体が、死を前提にしたものとする人は誰もいません。生きてゆくようになり、良い暮らしをする努力をする人は多いですが、よく死のうと考える人はあまりいません。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잘 죽을 수 있는 자리를 택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을 잘 살다가도 끝맺음을 잘 못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맺음과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생활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화예식은 죽었을 때 했습니다. 참부모님은 이제 성화예식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원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생해야 합니다.

【翻訳】

この世で一番幸せな人は、よく死ぬことができる位置を選んでおいて、生きてゆく人です。どんな位置で死ぬつもりなのかと思うことが重要です。自分の人生を、良い暮らしをしながらも締めくくることが、よくできなければ惨めな最後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す。始まりが重要ですが、締めくくるということと、結果も重要です。それで地上の生活は始まりと過程と終わりが全く同じ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目的は神様に向かって、神様の永遠の世界のために行くのです。

今まで聖和礼式は死んだ時にしました。真の御父母様はもう聖和礼式は死んでからすることなく、生きている時にし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ました。人間は墮落して死亡者となり、原罪を持ちました。それで重生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す。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복중에 생길 때부터 사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되찾아 지상에도 무형의 참부모님과 실체의 참부모님을 생활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영계에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영계에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이 곧 영계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翻訳】

ヨハネ福音8章44節を見れば、イエス様は'お前たちはあなたたちの父、すなわち悪魔から出たきたのであり、あなたたちの父の欲することを、お前らたちも行おうとしているのだ。悪魔は初めから人を殺した者です。真理がその中になので、真理に立つことができず、偽りを言うたびに自分のもので話すのでこれ、まさに嘘つきです。偽りの父になったことです。'と言いました。墮落した人間は腹中に生まれる時からサタン悪魔の子供に生まれており、すでに死亡者です。主人が違うということです。

血統を取り戻して、地上にも無形の真の御父母様と実体の真の御父母様を、生活の主人に迎えたとすれば、霊界にもそのまま行くのです。地上生活の主人に迎えたとすれば、霊界にもそのまま行くのです。地上生活がまさに霊界の生活になるのです。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 성화예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중생하고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부활하고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성화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서 영계에 들어갈 때 자동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혈통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꾸어야 성화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혈통을 바꾸는 것이 성주식이고 축복식입니다.

【翻訳】

そのために、地上で生きて死ぬ時に、聖和礼式を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身体を持っている時、重生をして、身体を持っている時、復活して、身体を持っている時、聖和礼式をするのです。それで、死んで霊界に入る時、自動的に通過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

サタンの血統を神様の血統に変えてこそ、聖和礼式ができます。血統を変えることが聖酒式であり祝福式です。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육신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축복가정들은 육신을 화장해서 강물에 뿌리지 않습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영계에 갔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열매가 나무에서 완숙해야 하는데 완숙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나무에 붙어서 완숙해야 하는데 나무가 없으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영인체가 육신에 미련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육신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당을 잡아서 물어줘야 합니다.

【翻訳】

人が死んだからといって、その肉身をむやみに捨ててはいけません。祝福家庭は肉身を化粧して、川の水にばら撒きはしません。完成できずに霊界に行った時は、それが問題になります。

実が木で完熟すべきなのに、完熟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落ちたのと同じことです。再び木について、完熟すべきなのに、木がなければつくことはできません。霊人体が肉身に未練を持って、帰ってきた時、肉身がなければ困ります。そのために明堂を捉えて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풍수설에는 음택과 양택이 있습니다. 양택은 육신을 지니고 사는 집을 말하고, 음택은 죽은 후에 육신이 묻히는 곳을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좋은 음택을 골라서 조상을 모셨습니다. 조상의 묘를 좋은 곳에 잘 쓰면 후손이 잘 되고 조상이 묘를 잘못 쓰면 후손이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 자연과 만물세계를 지을 때 모두 서로의 형상을 닮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과 그 지형이 어머 것은 닮을 닮았고, 어떤 것은 소를 닮았으면 어떤 것은 토끼를 닮았고, 어떤 것은 봉황을 닮았습니다. 그 지형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 점짜리 명당에 50 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후손은 망합니다. 주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준비된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翻訳】

風水説には陰宅と陽宅があります。陽宅は肉身を持って住んでいる家を言い、陰宅は死んだ後に肉身が埋められる所を言います。東洋では、良い陰宅を選んで先祖を迎えました。先祖の墓を良いところに、よく使えば、子孫がうまくいき、先祖の墓を誤って使えば、子孫が滅びると言います。

神様は、このすべての被造世界、自然と万物世界を作る時、すべてお互いの形状に似るように作りました。なので、山でも持っているその地形が、あるものは鶏に似たし、あるものは牛に似たし、あるものはウサギに似たし、あるものは鳳凰に似ました。その地形の中で一番良い位置を明堂と言います。ところで、100点の明堂に50点しかない人が入るならば、その子孫は滅びます。主人の資格を備えた人が準備された位置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3) 육신과 영인체의 구조 및 상대적 관계

肉身と靈人体の構造および相對的關係

육신은 육심과 육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육심은 육신의 마음에 해당하고, 육체는 육신의 몸에 해당합니다.

영인체도 생심과 영체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심은 영인체의 마음에 해당하고 영체는 영인체의 몸에 해당합니다.

【翻譯】

肉身は肉心と肉体の二重構造になっていますが、肉心は肉身の心に該当し、肉体は肉身の体に該当します。靈人体も生心と靈体の二重構造になっています。その中で、生心は靈人体の心に該当し、靈体は靈人体の体に該当します。

육신은 외부에서 무형의 공기나 빛을 통해 양적(+)인 영양소를 받고, 유형의 음식물을 통해 음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동시에 자체에서는 육심과 육체가 수수작용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영인체도 육신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양적인 영양소와 음적인 영양소를 받고, 자체에서 생심과 영체가 수수작용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생심과 영체가 수수작용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라는 양적인 요소를 받고, 육신으로부터 생력요소라는 음적인 요소를 받아 성장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생소는 원리와 사랑이고, 생력요소는 육신이 조성한 생명의 힘 곧 원리를 생활화한 인격입니다.

【翻譯】

肉身は外部から無形の空氣や光を通じて陽的(+)な栄養素を受け、有形の食物を通じて陰的(-)な栄養素を摂取すると同時に、自体においては肉心と肉体が授受作用をしながら成長します。

靈人体も肉身と同じように、外部から陽的な栄養素と陰的な栄養素を受けて、自体において生心と靈体が授受作用をしながら成長します。生心と靈体が授受作用をすると同時に、神様から生素という陽的な要素を受け、肉身からは生力要素という陰的な要素を受けて成長し、完成するのです。生素は原理と愛であり、生力要素は肉身が作った生命の力、すなわち原理を生活化した人格です。

영인체와 육신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영인체가 주체이고, 육신은 대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육신이 주는 생력요소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성장하면서 육신에게 다시 생령요소를 돌려줍니다. 생령요소는 육신을 통해 인격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발씀입니다. 생령요소는 양적인 요소가 되고 생력요소는 음적인 요소가 됩니다. 영인체와 육신이 생령요소와 생력요소를 주고받음으로써 인간은 육신을 쓰고 영인체를 성장시킵니다.

【翻譯】

靈人体と肉身は主体と対象の關係です。靈人体が主体であり、肉身は対象の位置に立つのです。靈人体は肉身が与える生力要素を受け、神様から生素を受けて成長しますが、成長して肉身に再び生靈要素を戻します。生靈要素は肉身を通じて、人格を生活化するようにするところに使うということです。

生靈要素は陽的な要素になり、生力要素は陰的な要素になります。靈人体と肉身が生靈要素と生力要素を授け受けすることによって、人間は活動し、靈人体を成長させます。

모든 존재의 성장과 완성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육신을 지니고 자라는 초기, 즉 소생기의 영인체는 영형체라 합니다. 영형체는 영형체급 영계에 갑니다. 그 다음에 장성기의 영인체는 생명체라 합니다. 생명체가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그 다음에 완성기의 영인체인 생령체가 되면 천국에 갑니다.

낙원과 천국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계신 곳은 초막이든 궁궐이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천국을 보기 때문에 낙원과 천국은 같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는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낙원은 원죄를 가지고도 갈 수 있고, 미완성해도 갈 수 있

고, 개인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원죄가 없어야 갈 수 있고, 영인체가 완성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천국의 기본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야 가는 곳입니다.

【翻訳】

すべての存在の成長と完成は蘇生期、長成期、完成期の3段階で成り立っています。肉身を持って育つ初期、すなわち蘇生期の霊人体は霊形体といいます。霊形体は霊形体級の霊界に行きます。その次に、長成期の霊人体は生命体といいます。生命体が行く所は樂園です。その次に、完成期の霊人体である生霊体になれば天国に行きます。

樂園と天国という概念を確実に分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キリスト教では、神様がおられたところは草幕でも宮廷でも天国といいます。そのような観点で天国を見るために、樂園と天国は同じことと理解します。しかし原理的に見る時には、樂園と天国は違います。樂園は原罪を持ってても行くことができ、未完成であっても行くことができ、個人的でも行くことができます。

しかし、天国は原罪がなくてこそ行くことができ、霊人体が完成してこそ行くことができる所です。また、天国の基本単位が家庭なので、家庭をもってこそ行く所です。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 장 43 절)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됐지만 천국 생활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세계, 심정이 완성된 세계인데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을 해보지도 못했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고, 선민이라는 유대 민족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사랑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만나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심정의 세계인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오른편 강도에게 '나와 같이 낙원에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원리적 개념과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본 천국은 원죄를 갖고는 갈 수가 없으며, 가정단위로 가는데 완성한 영인체가 가는 곳입니다.

【翻訳】

イエス様はメシアであり、人類を救援するために来られた神様の息子でしたが、天国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境遇なので、右側の強盗に'おまえが私とともに樂園にいるだろう。'(ルカ福音 23 章 43 節)と言われました。イエス様は天国に住むことができる人にはなれなかったし、天国生活をするできませんでした。イエス様は家庭を持つ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す。

天国は愛が完成された世界、心情が完成された世界なのに、愛の実体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は、愛してみ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し、愛を受けてみた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父母の愛も、兄弟の愛も、受けてみ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し、選民と言われたユダヤ民族の愛も受けてみるできませんでした。弟子の愛も受けてみるできませんでした。そして相對に会って愛してみたこともないのです。

それで、イエス様は愛と心情の世界である天国に入城できなくて右側の強盗に'私とともに樂園に行こう。'と言われました。キリスト教徒が信じている天国という概念は原理的概念と全く違うように使われています。原理的に見た天国は、原罪を持っていては行くことができず、家庭単位で行くのであり、完成した霊人体が行く所なのです。

인간의 영인체는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에만 성장하고 완성합니다. 만약 영인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육신을 잃었다면, 그 영인체는 지상의 후손이라든가 자기의 성품과 소질이 맞는 사람의 육신을 빌려 그의 영인체와 함께 성장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육신을 지닌 시간이 대단히 귀중합니다. 육신을 지니고 모든 것을 느끼고 체

홀하고 완성하고 나서 영계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구상하신 인간 창조의 설계도입니다.

【翻訳】

人間の霊人体は、肉身を持っている時にだけ、成長して完成します。もし霊人体が完成されずに肉身を失ったとすれば、その霊人体は地上の子孫とか、自らの性分と素質が合う人の肉身を借りて、彼の霊人体とともに成長して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のために、地上で肉身を持っている時間が非常に貴重なのです。肉身を持って、全てのものを感じ、体恤し、完成して出て、霊界に行くようになっていることが、本来、神様が構想された人間創造の設計図なのです。

人間の完성은 영인체의 완성입니다. 영인체의 완성은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생심의 완성이요. 생심의 완성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의 완성입니다. 심정의 완성은 참사랑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신 인격 완성입니다. 심정의 완성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절대성을 완성한 터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절대성을 지켜 참혈통의 전수가 완성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육신을 쓰고 생령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완성은 심정 완성과 절대성 완성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전수되고 상속됩니다. 영인체의 완성은 바로 인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육신생활을 통해서 영인체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翻訳】

人間の完成は、霊人体の完成です。霊人体の完成は、神様が訪ねてくることが出来る生心の完成です。生心の完成は、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る心情の完成です。心情の完成は真の愛の完成です。神様の希望である人格の完成です。心情の完成は、神様が取って食べるなという御言を守って、絶対性を完成した根拠地からくるのです。絶対性を守り、真の血統の伝授が完成された時、人間は初めて肉身を使って生霊体になるのです。

人間の完成は、心情の完成と絶対性の完成の二種類です。ここから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が伝授され、相続されます。霊人体の完成は、まさに人間の完成なのです。それで、肉身生活を通じて霊人体一つを完成することが、人間がこの世の中に生まれ、生きていく目的です。目的を達成すれば肉身は土に戻り、霊人体が霊界に行って永生するのです。

인간은 지상에서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에서 영인체로 가는 요소가 생력요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와 말씀을 육신을 통해서 생활화하는 인격의 요소가 생령요소입니다.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더라도 죽는 순간까지는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를 성장, 완성시키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생활이 중요합니다. 영인체를 완성시킨다는 말은 사랑의 완숙, 심정의 완숙을 말합니다. 완숙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고 느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 완성의 최종 목적은 4대심정권의 완성입니다. 4대심정권의 완성은 절대성 위해서 세워집니다. 아무리 심정 완성의 길을 가더라도 절대성을 지키지 않고 타락해 버리면 그 순간에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지고 자기 속에서 생소가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翻訳】

人間は地上で霊人体を完成するために生きていきます。肉身から霊人体に行く要素が生力要素であり、神様が授ける原理と御言を肉身を通じて、生活化する人格の要素が生霊要素です。

老いて死ぬ日が近くに来たとしても、死ぬ瞬間までは肉身を通じて霊人体を成長、完成させ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肉身生活が重要です。霊人体を完成させるという言葉は、愛の完熟、心情の完熟を意味します。完熟するためには、死ぬ時まで、愛の生活を実践して、感じて、生きなくてははいけません。

人間完成の最終目的は4大心情圏の完成です。4大心情圏の完成は、絶対性の上に立てられます。いくら心情の完成の道を行ったとしても、絶対性を守らないで墮落してしまえばその瞬間に終わります。その次からは絶望です。希望がなくなり、自分の中から生素が出てきません。なので、喜びがあふれません。

(1) 육신생활의 중요성

육신을 지니고 영인체의 성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완성은 3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영인체가 생기고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상생활을 통해서 4대심정권을 완성해야 합니다. 참사랑을 체휼하고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상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지상에서 속죄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속죄할 때는 탕감조건을 세워야 죄가 청산되는데, 영계에서는 탕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만 속죄할 수 있습니다.

【翻訳】

(1) 肉身生活の重要性

肉身を持って霊人体の成長を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完成は3段階で成り立ちます。必ず肉身があってこそ、霊人体が生じ、霊人体が成長して完成します。肉身が必須なのです。地上生活を通じて4大心情圏を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真の愛を体恤して、真の愛を完成するためには、地上生活が必要なのです。

人間が地上に生きて罪を犯したとすれば、必ず地上で贖罪して帰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贖罪する時は蕩滅条件を立ててこそ罪が清算されますが、霊界では蕩滅法が適用されません。それで、地上だけでのみ贖罪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육신 쓰고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다 밋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영계에서 죄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럴기 때문에 지상에 재림해서 육신을 지닌 인간을 통해서 그 죄의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20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영계에서 그 정도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지상에서만 1분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생활은 영인체를 탄생시키고 영인체를 번식시킵니다. 육신이 없으면 영인체의 번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인체에 지극히 필요한 것이 육신입니다. 영인체를 성장시키야 할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생활 자체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翻訳】

肉身を使って罪を犯した人が、その罪をすべて清算することができずに霊界に行けば、霊界で罪を脱ぐ方法がないのです。そのために、地上に再臨して、肉身を持った人間を通じて、その罪の蕩滅条件を立てなくてはなりません。そのようにするには、2000年が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霊界でそのような苦痛にあう前に、地上で、ほんの1分でも大切に正しく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永遠の喜びと幸福を得るためです。

肉身生活は霊人体を誕生させ、霊人体を繁殖させます。肉身がなければ、霊人体の繁殖もありません。それで霊人体において極めて必要なものが肉身です。霊人体を成長させ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肉身なのに、肉身をおろそかに感じるので、生活自体をおろそかにしやすいのです。

지상생활은 영계를 결정합니다. 지상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영계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회개하고 가겠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열매가 상처를 입고 쪽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상에서 절대 잘못되지 않게 살고 영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을 지니고 선한 생활을 하면 영인체의 선화가 이루어져 천국에 가고, 악한 생활을 하면 영인체의 악화가 이루어져 지옥으로 사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 주관권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사탄 주관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翻訳】

地上生活は霊界を決めます。地上生活をどのように過ごしたのかというのが、霊界での生活を決めるのです。自分の思いのままに生きて、死ぬ時になって'改心して行く。'というのは、すでに遅いのです。実が傷を負ってチュクチョンイになったという話です。地上で絶対に誤らないように生きて、霊界に帰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肉身を持って善なる生活をすれば、霊人体の善化がなされ、天国に行き、悪なる生活をすれば、霊人体の悪化がなされ、地獄で生きることになります。善なる人は神様の主管圏に行き、悪なる人はサタンの主管圏に行くのです。完全に神様に似た人間になった時に、初めて天国の主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그래서 인간은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리대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의 본심에 따라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영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터전이 본심입니다. 본심은 정상적인 분야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본심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지극해 독자적이고 지극히 중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속성입니다.

【翻訳】

それなので、人間は原理の通りに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霊界があるので、人間は原理の通りに善良に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神様を父母としてむかえて、誰が何と言っても、自らの本心に従って、良心の声を聞いて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霊界があるので、神様が人間に良心を授けられました。良心は神様を代身するのです。

良心を通じて入ることができる根拠地が本心です。本心は性相的な分野の奥深いところにあります。良心を通じて本心を成熟するようにさせるのです。ところで、良心は誰の話も聞きません。どんな話も聞きません。限りなく独自であり、極めて中心の位置にあるものが良心です。良心は神様が私たちにくれた大事な属性です。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부모보다도 앞서 있고, 스승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은 밤이나 낮이나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은 언제나 나와 함께할 수 없지만, 내가 기쁜 것을 하면 양심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내 안에서 참 스승의 노릇을 합니다. 나를 언제나 올바르게 기르는 부모는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양심은 부모보다 더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를 지도하면서 선한 영인체를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영인체는 지상에 살면서 만드는 인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어떤 작가가 자기의 일생을 투입해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 놓고 죽었다면, 그 작품은 그 사람의 일생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작품보다도 귀한 영인체 하나를 완성시켜 놓고 가야 합니다. 어떤 작품보다도 영인체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翻訳】

良心は神様より前にあり、父母よりも前にあり、師匠よりも前にあります。父母は私を守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ころが、自分の中にある良心は、夜や昼間を問わず、自分を守っています。師匠は、常に出てきて共に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が、私が嬉しいことをすれば、良心は'そんな風に生きてはいけない。'と言いながら、私の中で真の師匠の役割をします。私をいつも正しく育てる父母は、出てきて、永遠に共に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良心は、父母よりさらに永く心血を注いで、私を指導して、善良な霊人体を作れるように努力します。

霊人体は地上に生きて作る、人間最高の傑作品です。どんな作家であろうと、自らの一生を投入して作品一つを作っておいて、死んだとするならば、その作品はその人の一生を代表するものであるもので、価値があ

ります。私たちは、どんな作品よりも貴重な霊人体一つを完成させておい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どんな作品よりも、霊人体には生命力があります。

그것은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생명력을 지닌 작가로서 이 세상에서 영인체라는 작품 하나를 완성시켜 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육신을 중심하고 영인체가 번식하고 탄생합니다. 그래서 지상생활은 영계를 결정합니다. 누가 지옥이나 천국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생활 그 자체가 영계를 결정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예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살아야 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영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翻訳】

それは、人に何よりも貴重な生命力があるためです。貴重な生命力を持った作家として、この世で、霊人体という作品一つを完成させておいて、帰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私たちの人生の道です。

肉身を中心として、霊人体が繁殖し、誕生します。それで、地上生活は霊界を決定します。誰かが地獄や天国へ送るのではありません。地上生活それ自体が、霊界を決定します。イエス様を信じて天国行くのではありません。その御言を私が実践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イエス様を信じる目的は、私がイエス様のような人になるためです。

私たちが真実に生きなければならず、充ち足りて価値あるように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理由は、霊界があるためです。

(2) 영인체의 중요성

영인체는 영계의 주인입니다. 육신을 지니고 지상에서 사는 동안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심정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인체가 사랑을 완성하고 심정을 원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교합니다. 영교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영교는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영교는 영인체 속에 있는 생심이 심정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翻訳】

(2) 霊人体の重要性

霊人体は霊界の主人です。肉身を持って地上で生きる間、霊人体が霊界に行って主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人格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霊界は愛の世界であり、心情の世界です。その世界の主人になるためには、霊人体が愛を完成し、心情を円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でなければ主人になれません。

また、霊人体は肉身の主体です。そして神様と霊交します。霊交は霊的な交流を言いますが、ここでは、神様に侍り生きることを意味します。神様との霊交は霊人体があるので可能なのです。神様との霊交は霊人体の中にある生心が、心情を通じて連結されるのです。

영인체는 하나님과 영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영인체도 영생합니다.

영인체는 육신과 모양이 동일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인체는 육신을 통해서 생기고 육신을 통해서 성장 완성합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인체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추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은 영인체가 흉측하게 생기다는 것입니다. 몸은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 자체가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翻訳】

霊人体は神様と霊交する最も重要な部分です。それで、神様が永遠のように霊人体も永生します。

霊人体は肉身と形が同一です。肉身は土に戻りますが、霊人体は肉身を通じてできており、肉身を通じて成長し、完成します。

肉身を持っている時に、どのように暮らしたかによって霊人体は美しくなったり醜い姿になったりもします。誤った考えで生きた人間は、霊人体が醜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身体は同じ人なのに、顔自体がとても醜い姿になってしまいます。

반면에 지상에서 볼 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못생겼다고 손가락질 받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인체가 완성되면 영계에서는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영인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속에는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일생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까지 기록됩니다. 생각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翻訳】

反面、地上で見る時は思わしくない姿で、世の中の人々にぶさいくだったと後ろ指を差された人も、神様の御言に従って霊人体が完成されれば、霊界では極めて美しく、極めて偉大に見えます。地上でどのように暮らしたのかによって霊人体が変わるのです。

霊人体の中には、地上でどのように暮らしたのかという彼の一生が、自動的に記録されています。生きながらにして、考えることまで記録されます。考えだけではなく、話すのも一寸の誤差もなく、そのまま記録されます。

과거에는 각종 경기에서 선수들이 조그마한 오차를 놓고 심판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요즈음에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녹화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가 동원되어 입체적으로 촬영합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전후, 우좌, 상하에서 촬영합니다. 그것을 분석하면 금방 판정이 남니다. 느린 동작으로 보면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경기에 영향을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까지 기록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생각한 것도 영인체에 기록됩니다.

【翻訳】

過去には各種の競技で、選手たちが小さな誤差を置いて審判と戦ったりもしました。近頃は戦う必要がありません。録画技術が発達したためです。カメラが動員されて、立体的に撮影します。一方向ではなく前後、左右、上下で撮影します。それを分析すれば、すぐに判定が出ます。遅い動作で見れば、簡単に優劣を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万一、ある人が競技に影響を与える言葉を言ったとすれば、それまで記録されます。同じように誰にも分からないように、一人で考えたことも霊人体には記録されます。

(3) 천국과 지옥의 결정

영계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다 왔는 지를 금방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가 행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타아적 자각' 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의 체험을 남을 위한 실천력으로 만드는 것이 타아적 자각입니다. 그것이 이타요, 위타입니다.

【翻訳】

(3) 天国と地獄の決定

霊界に行けば、その人がどんな考えをし、どのように生きてきたのかがすぐ分かります。なので、誰かが天国や地獄に送るのではありません。自分で決めて、自分が行った通り行くのです。天国と地獄は自分自身が決めるのです。

犠牲になり、苦痛でも、他人のために生きた人間は天国に行きます。そのように生きることを'他我的自覚'と言います。難しい環境での体験を、他人のために実践力することが他我的自覚です。それが利他で

あり、為他です。

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자아적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기요, 위기로서 사탄의 요소입니다. 천사장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그것이 천사장의 타락입니다. 그때부터 천사장은 사탄이 되었습니다.

【翻訳】

反面、自分の利益のために人を犠牲にさせ、人を犠牲にさせて自分を保護しようと思う心を持っている人々が行く所が地獄です。そのように生きることを'自我的自覚'と言います。自分で悟ったのことを、自分のために結実を結ぶようにす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がまさに利己であり、為己でありサタンの要素です。

天使長はアダムとエバが完成して神様の子女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アダム・エバの胸中に神様の心情を教え、神様が父母というものに重点を置いて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が、天使長は自身が神様の位置に入って、神様の振る舞いをしました。それが天使長の墮落です。その時から天使長はサタンになりました。

타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요소가 작용해서 결전된 것입니다. 타락도 자아적 자각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타적이 되어야지 이기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언제나 타아적 자각이 필요합니다.

본연의 인간은 마음속에 타아적 자각을 지니고, 타락한 인간은 마음속에 자아적 자각을 지닙니다. 본연의 인간과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한 점에서 목적과 동기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은 자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翻訳】

墮落は一日で成り立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御言を破って、神様の位置を占めたことは一朝一夕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多くの時間、そのような要素が作用して決定されたのです。墮落も自我的自覚が長い間、蓄積されて起きたことです。それで、いつも利他的になるべきであり、利己的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神様の御旨のためには、いつでも他我的自覚が必要です。

本然の人間は、胸中に他我的自覚を持っており、墮落した人間は胸中に自我的自覚を持ちます。本然の人間と墮落した人間には、そのような差異点があります。それで天国と地獄は自分が決めるのです。

それは考えと行動にしたがって決定されます。なので一点で目的と動機が変わり、方向が変わります。地獄と天国に分かれるのは自身によって決定されます。

(4) 생심과 욕심의 관계로 본 인간의 마음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은 욕신의 마음인 욕심을 통해서 완성하는데 생심의 완성은 곧 영인체의 완성입니다. 생심과 욕심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성상은 주체고 형상은 대상입니다.

【翻訳】

(4) 生心と肉心の関係から見た人間の心

靈人地の心である生心は、肉身の心である肉心を通じて完成するので、生心の完成はまさに靈人体の完成なのです。生心と肉心の関係は性状と形状の関係と同じです。性状は主体であり、形状は対象です。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중심해서 생심과 육심이 성상과 형상의 관계로 상대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으면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은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으로 합성일체화한 하나의 작용체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심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翻訳】

人間の心

神様を中心として、生心と肉心が性状と形状の關係で相對基準を作り、授け受けすれば心が現れることになります。心は生心と肉心の授受作用で合成一体化した一つの作用体です。

人間の心には二種類があります。本心があり、良心があります。

창조 목적을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심과 육심이 상대기준을 조성해서 수수작용하면 합성일체화한 마음이 되는데 그 마음을 본심이라고 합니다. 본심은 육심이나 생심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할 때 본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심과 육심이 있어야 합니다. 본심의 성장과 완성은 생심과 영체, 그리고 육심과 육체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翻訳】

創造目的を置いて、神様を中心として生心と肉心が相對基準を作り、授受作用をすれば、合成一体化した心になるのであり、その心の本心といいます。本心は肉心と生心の二つのうち、一つだけを持って成り立つ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の二つが一つになって、神様の創造理想を完成する時、本心の目的が成し遂げ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

本心を完成するためには生心と肉心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本心の成長と完成は、生心と霊体、そして肉心と肉体の關係の中で實現されるのです。

육심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심은 본심과 함께 영원히 영인체 속에 남습니다. 육신이 노쇠하여 흙으로 가게 될 때 육심도 같이 없어지지만 생심은 본심과 함께 영원히 영인체 속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진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중심해서 상대기준을 조성한 생심과 육심의 수수작용으로 합성일체화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翻訳】

肉心は肉身が生きている時にだけ存在します。そして生心は、本心と共に永遠に霊人体の中に残ります。肉身が老いて土に帰ることになる時、肉心も一緒になくなりますが、生心は本心と共に永遠に霊人体の中に残るということです。

良心は真理を中心として成り立ちます。自分が真理だと信じるものを中心として、相對基準を作り、生心と肉心の授受作用によって合成一体化した心が良心です。

하나님을 중심하고 상대기준 조성한 생심과 육심이 수수작용하면 합성일체화한 작용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작용체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중에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중심하고 생심과 육심이 수수작용해서 합성일체화한 마음이 본심이고, 진리를 중심해서 생심과 육심이 수수작용해서 합성일체화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본심의 지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절대 진리의 기준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하고 양심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양심의 지향성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지향성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믿고 있는 진리라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翻訳】

神様を中心として相対基準作り、生心と肉心が授受作用をすれば、合成一体化した作用体を成すことになりますが、その作用体がまさに心です。その中で、神様の創造目的を中心として、生心と肉心が授受作用をして、合成一体化した心が本心であり、真理を中心として生心と肉心が授受作用して合成一体化した心が良心です。

人間は善良に生きようと思う本心の指向性は持っています。ところが、墮落したために絶対真理の基準は喪失し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各自が真理だと考えるものを中心として、良心基準も変わります。理念と思想が違えば、良心の指向性も変わることになるのです。良心を守る人々が互いに戦う指向性も変わることになるのです。良心を守る人々が互いに戦う理由もここにあります。良心を通じて信じている真理という観心が、それぞれ違うので良心を守る人々でも互いに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본연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일체 된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원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리는 근본입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그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나타난 진리관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翻訳】

本然の世界では、神様と一体となった真理はただ一つです。それを原理だと考えてもかまいません。それで、原理は変わることがありません。原理は根本です。原理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と一つになるために、真理が必要です。神様は被造世界を通じて、真理の内容を私たちに明らかにしてくれています。ところが、墮落によって、その真理を正しく見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偽りになったものを見ることになりました。偽りになったものを真理だと信じているために、良心を通じて現れた真理観もそれぞれ違うということです。

본심과 양심의 관계

본심과 양심은 성상과 형상의 관계입니다. 본심은 안과 같고 양심은 밖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상대기준을 조성한 본심과 양심의 수수작용으로 본연의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본심과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지향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합니다. 본심과 양심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달리한 사심에 반발하고 선을 지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翻訳】

本心と良心の関係

本心と良心は性相と形状の関係です。本心は内と同じであり、良心は外と同じです。神様を中心と相対基準を作った本心と良心の授受作用により、本然の心が成り立ちます。

本心と良心は、いつも神様の善なる目的を指向しており、その御旨に従わせます。本心と良心は神様の御旨と方向を異にした邪心に反発し、善を指向するようにする要素です。

타락인간의 생심과 사심

타락인간의 생심과 욕심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로 사탄의 영향권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생심은 욕심을 대해서 주체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의 주관을 받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욕심의 주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생심이 사탄의 주관권에 있는 욕심과 수수작용하여 합성일체화한 마음은 사심이라고 합니다. 생심이 성숙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완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성숙사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욕심과 일체가 되면 그 영향으로 욕심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욕심이 주체가 되고, 생심은 그 욕심의 주관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의 생심과 욕심이 주고받아 합성일체화한 마음이 사심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적인 모습을 흉내내서 먼저 이루어 놓는 것이 사탄의 세계입니다.

【翻訳】

墮落人間の生心と邪心

墮落人間の生心と肉心は異なった姿をしています。墮落によって、生心は神様から生素をまともに受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未熟な状態でサタンの影響圏に留まることになります。このような生心は、肉心に対して主体的な立場に立つことができなくなり、かえって肉心の主管を受けるようになります。成熟できずに肉心の主管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未熟な生心が、サタンの主管圏にある肉心と授受作用して、合成一体化した心を邪心といいます。生心が成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との関係が切れて完熟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未成熟事態というものです。

サタンが肉心と一体となれば、その影響で肉心がさらに成熟するので、肉心が主体になり、生心はその肉心の主管下に置かれることになります。そういう状態の生心と、肉心が授け受けして、合成一体化した心が邪心というものです。なので神様の原理的な姿をまねて、先に作り上げるのがサタンの世界なのです。